

梁 光 錫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乖崖 金守溫의 文學意識과 詩世界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羅 珉 禎

乖崖 金守溫의 文學意識과 詩世界

梁光錫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羅 珉 禎

認 准 書

羅珉禎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 논문은 乖崖 金守溫(1409~1481)의 詩文學의 價値를 糾明하기 위하여, 生涯와 時代的 背景, 學問世界와 文學意識, 詩世界, 文學史的 意義의 順序로 연구를 進행하였다.

生涯와 時代的 背景에서는 乖崖의 개성적인 시세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문학배경을 조명하였다. 생애에서는 家系와 成長背景을 통해 그의 儒佛調和思想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하였고, 시대적 배경에서는 당시 문단의 흐름을 살펴 조선전기에 요청되었던 文學의 特性을 살펴보았다.

學問世界와 文學意識에서는 그 유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괴애의 주체적인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朱子學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佛家의 道를 겸비하여 폭넓은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학문세계를 바탕으로, 文學意識에서는 當代의 儒家的 文風과 佛敎의 特性을 調和하여 文彩를 풍부하게 만든 그의 문학적 特性을 살펴 볼 수 있었다.

詩世界에서는 形式과 內容의 特性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괴애 시세계의 총체적 特性을 검토하였다.

형식상 特性에서는,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다양한 詩型과 押韻의 유형, 그리고 近體詩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된 疊韻과 對偶의 特性을 살펴보았다.

내용상 분류에서는 儒家的 삶의 追求, 儒佛思想의 調和, 旅情의 感慨, 山水에서의 興趣로 大別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儒家的 삶의 追求에서는 관각문인으로서 大義名分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째, 儒佛思想의 調和에서는 儒家들의 비판을 받는 현실적 갈등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儒佛調和의 세계를 살필 수 있었다. 셋째, 旅情의 感慨에서는 나그네로서의 감회를 통해 그의 여정의 흥취를 이해하였고, 더불어 소박하고 인정미 넘치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山水에서의 興趣에서는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서정적 감성에 젖어,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는 그의 청정한 시세계를 이해하였다.

집현전 출신 문인으로서 開國編纂事業에 적극 참여했던 괴애 김수온은, 당시의 절대적 이념이었던 儒學에 佛敎를 접목시킴으로써, 나름대로의 독창적 학문세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詩世界를 이룩하였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1
1. 研究 目的과 意義	1
2. 研究 現況과 方法	2
II. 生涯와 時代的 背景	6
1. 生涯	6
2. 時代的 背景	12
III. 學問世界와 文學意識	16
1. 學問世界	16
2. 文學意識	22
IV. 詩世界	27
1. 形式上 特性	27
1) 詩型	28
2) 押韻	30
3) 疊語	31
4) 對偶	36
2. 內容上 分類	42
1) 儒家的 삶의 追求	42
2) 儒·佛思想의 調和	49
3) 旅情의 感慨	54
4) 山水에서의 興趣	59
V. 文學史的 意義	68
VI. 結論	72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과 意義

乖崖 金守溫은 朝鮮前期 世宗代에서 成宗代까지 활동했던 학자이며 문인으로, 사상적으로 儒·佛에 두루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는 詩文에도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어, 당시 世宗과 世祖의 寵愛를 한 몸에 받았었다.

그는 集賢殿에서 『治平要覽』과 『醫方類聚』를 修撰하는데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의 命으로 『釋迦譜』를 增補修撰하는 등 당대에 그 文才를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그의 清新하면서도 豪放한 詩文學은 明나라 文臣들까지도 극찬하였는데, 후에 成宗의 命으로 그의 문집 『拭疣集』이 간행되었다.

괴애의 學問은 朱子學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佛敎를 겸하는 儒·佛調和思想을 이룩함으로써, 儒·佛의 경계를 넘어서는 道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文學에 있어서는 古文을 숭상하면서도 자신의 호방한 기질을 거침없이 발휘하였는데, 여기에 불교적 성향이 가미되어 內容이 깊고 文彩가 풍부하다.

천부적 자질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詩文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괴애의 문학적 재능은, 朝鮮의 漢詩史에 개성 있는 詩人으로 자리매김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독특한 학문 세계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그의 詩文學 作品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괴애의 학문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작품을 儒·佛思想에만 연관시킴으

로써 學問과 文學의 有機的 關係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學問과 文學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괴애 시의 特性과 文學史的 意義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生涯와 時代的 背景을 살펴 문학적 배경이 작품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學問世界와 文學意識을 통해 문학형성의 근원이 되는 학문적 특성과 그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의식이 시의 형식과 내용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朝鮮前期 漢詩史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점유했던 사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괴애 김수온의 시문학 연구는 그의 작품의 文學史的 意義를 새롭게 밝힘은 물론, 韓國漢詩史의 체계적 정립에도 一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 現況과 方法

乖崖의 文學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문학적 가치에 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초기 연구는 崇佛思想을 중심으로 乖崖라는 인물의 일생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李昊榮은 「乖崖 金守溫의 文名과 崇佛 性格」¹⁾에서 김수온의 家系와 生涯를 살피고 그의 崇佛思想을 고찰하면서, 괴애 김수온을 조선전기 문인 중 개성있는 인물로 새롭게 부각시켰다.

괴애의 詩文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崔祐榮에서부터 이루어졌다. 崔祐榮은 「金守溫詩研究」²⁾에서 生涯와 文學觀, 작가의 內面意識과 작품의 風格을 통

1) 李昊榮, 「乖崖 金守溫의 文名과 崇佛 性格」, (論文集 Vol.10, 1976)

해 詩世界를 고찰하면서, 괴애 시의 가장 큰 특질로 ‘豪健’을 들어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김수온 문학연구에 礎石을 다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李鍾建은 「金守溫 詩文學 考」³⁾에서, 그의 작품 속에 현실인식으로서의 儒敎와 종교로서의 佛敎가 조화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그의 폭넓은 사상과 종교의식이 빚어낸 시문학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儒·佛思想의 調和가 민족정서의 발현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盧承奭은 「拭疣集 譯註-卷四·補遺所載詩」⁴⁾에서, 그의 詩에는 禪意識이 두드러진다고 밝히면서, 『拭疣集』에 수록된 詩를 모두 번역하였다. 이 논문은 김수온 詩 全篇을 살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詩의 性格과 思想的 指向에 대한 접근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의 思想과 作品의 有機的 解明이 미흡하다.

그 밖의 연구로는 김수온의 記類에 대한 鄭完基의 연구가 있다.⁵⁾ 최근에는 조윤희가 「朝鮮前期 金守溫家の 佛敎信仰」⁶⁾에서 그의 崇佛思想을 家系와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그의 불교사상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朝鮮前期 士大夫家の 불교신앙의 성향을 밝히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선행 연구자들이 거둔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괴애의 詩文學에 대한 연구는 儒·佛思想의 범주 내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괴애의 崇佛思想이 조선전기 朱子學과 상

2) 崔祐榮, 「金守溫詩研究」(연세대 석사논문, 1986), 후속연구로 「金守溫 文章의 特質」, 『洙上古典研究』 Vol.2. (洙上古典研究會, 1989)이 있다.

3) 李鍾建, 「金守溫 詩文學 考」, 『畿甸語文學』 Vol.2.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4) 盧承奭, 「拭疣集 譯註-卷四·補遺所載詩」(성균관대 석사논문, 2003)

5) 鄭完基, 「金守溫 文學에 대한 考察 - 序·記를 중심으로」(동국대 석사논문, 2001)

6) 조윤희, 「朝鮮前期 金守溫家の 佛敎信仰」(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4)

충되었던 점을 부각시켜, 괴애를 다른 문인들과 차별화 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의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지나치게 儒와 佛이라는 사상적 분류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연구는 괴애의 生涯와 思想에만 입각하여 詩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詩作品 자체에 대한 문학적 내용분석이 미흡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그의 學問과 文學意識을 有機적으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그의 詩世界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金守溫 文學의 形成背景을 生涯와 時代的 背景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애에서는 그의 儒·佛調和思想이 형성된 배경과 함께 현실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그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에서는 당시 문단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朝鮮前期 詩壇에서 요청되던 文學觀을 이해하여 괴애 시를 조명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문학작품의 근간이 되는 學問世界와 文學意識을 살펴 그 특질을 규명하고,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학문세계에서는 儒·佛에 대한 그의 학문적 깊이를 이해한 후, 그것을 조화롭게 수용하고자 노력했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의식에서는 그의 학문세계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詩를 形式과 內容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그의 詩世界 전반을 탐색하고자 한다. 형식상 특성에서는 크게 詩型, 押韻, 疊語, 對偶로 나누어 살펴보고, 내용상 분류에서는 儒家的 삶의 追求, 儒·佛思想의 調和, 旅情의 感慨, 山水에서의 興趣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V장에서는 김수온 시의 文學史的 意義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그의 작품

에 대한 諸家들의 評을 살펴보고, 이어 필자가 본고에서 논증한 사실을 재평가하여 괴애 시가 갖는 詩文學的 意義를 밝히고자 한다.

제VI장은 結論으로, 본고에서 괴애 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후일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生涯와 時代的 背景

1. 生涯

金守溫(太宗9:1409~成宗12:1481)의 字는 文良, 號는 乖崖, 諡號는 文平이고, 本貫은 永山(지금의 忠淸南道 永同)이며, 父 金訓과 母 驪興李氏 사이에서 四男一女 중 三男으로 태어났다.

그의 始祖 金令貽는 新羅 神武王의 넷째 아들인 金益光의 후예로, 고려때 典客署令을 역임한 후, 忠同德保社功臣으로 檢校都僉議贊成事에 추증되고 永山君에 追封되었다. 高祖 金吉元은 恭愍王때 版圖判書을 지내다가 紅巾賊을 토평한 공으로 永山府院君에 봉해졌는데, 이후 그의 후손들이 本貫을 永山으로 하였다. 曾祖 金宗敬은 高麗 定宗때 文科에 급제하고 右贊成과 判義禁府事를 거쳐 都摠管을 지냈다.

父 金訓은 文科 出身으로 학문과 덕행을 인정받아 太宗 2년에 元子僚屬인 左右同侍學이 되었다.⁷⁾ 그러나 太宗 16년 沃溝鎮兵馬使로 있을 때, 祖母의 喪을 당하고도 殯所에 가지 않아 많은 儒臣들로부터 不孝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지키던 軍鎮을 떠나 몰래 上京하여 수개월 동안 은밀히 仁德宮(定宗御宮)을 出入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⁸⁾ 결국 金訓은 不忠不孝를 범한 죄인이라 지탄받아 家産을 몰수당하고, 杖 一百에 全羅道로 流配되었다.⁹⁾ 이후에도 이 사건은 큰 논란이 되어, 世宗은 金訓을 庶人으로 하고 外

7) 『太宗實錄』 卷三, 二年 四月 庚午.

8) 『太宗實錄』 卷三十一, 十六年 二月 癸亥.

9) 『世宗實錄』 卷六, 一年 十一月 辛丑.

方에 가서 살게 했다.¹⁰⁾

아버지가 면직된 이후, 만형 守省(法名 信眉)과 母親 驪興李氏, 그리고 중형 守經과 형수가 모두 佛家에 歸依하였고,¹¹⁾ 결국, 피애는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불운한 성장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타고난 文才와 유별난 독서습관으로 학문에 전념하였다.

젊었을때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 성균관에 왕래하면서, 날마다 한 장씩 찢어서 옷소매에 넣어두고서 그것을 외웠다. 만약 잊어버린 곳이 있으면 곧 꺼내어서 보다가, 다 외우고 나면 그것을 버렸다. 그러므로 책 한 질을 다 외우고 나면 한 질이 다 없어졌다.¹²⁾

이렇듯 남다른 독서벽으로 학문에 매진했던 그는, 이후 세종 20년(1438) 30세의 나이에 進士試에 급제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33세에 文科에 급제하여 校書館正字에 補任되었는데, 이때 世宗이 그의 재주를 듣고는 특명을 내려 集賢殿에 仕進하여 『治平要覽』과 『醫方類聚』 편찬에 참여케 하였다. 당시 世宗은 종종 글제를 내어 집현전의 여러 儒臣들에게 詩文을 짓게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여러 번 壯元을 차지하였다. 38세에는 副司直에 올라 『釋迦譜』를 增修하였고, 이어 承文院校理와 兵曹正郎知製敎에 특별히 除授되었다. 그러나 그의 빠른 승진에 대해 당시 조정에서는 반대의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10) 『世宗實錄』 卷五十二, 十三年 五月 癸未.

11) 김수온의 가족들이 佛家에 歸依한 구체적인 時期와 理由는 알 수 없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에 그의 가족이 佛家에 歸依했다는 기록이 散在해 전하고 있다.

12) 成俔, 「慵齋叢話」 卷四, “少時每從人借書 來往泮宮 日日抽取一張 藏諸袖間而誦之 若有遺忘之處 則出而視之 誦已卽棄 故誦一帙 則一帙盡矣”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2000) p.175.

金守溫으로 承文院敎理를 삼았는데, 守溫은 본래 부처에 아첨하는 자이다. 그의 형 僧 信眉가 僧道를 꾸며 임금에게 충애를 얻었는데, 守溫이 左右를 因緣하여 首陽과 安平 두 大君과 함께 佛書를 번역했다. 만약 宮內에서 佛事가 있으면 司僕 少尹 鄭孝康과 더불어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밤낮 合掌하고서 經을 외고, 염불을 하며, 설법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 여러 대군들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여겨서 임금이 특별히 政曹를 제수하라고 명하였는데, 마침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직책을 준 것이었다.¹³⁾

과에는 不忠不孝를 범한 죄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불교를 숭상하므로 관직을 제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儒臣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극구 그를 승진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이다. 太宗의 抑佛政策을 계승한 세종은, 僧侶들의 城內出入을 禁하고 幼少年들의 出家를 禁할 정도로 엄하게 불교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중년 이후 두 大君과 王后를 잃는 연이은 喪事를 겪으면서 세종은 불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다.

임금이 두 大君을 연달아 잃고 왕후가 이어 승하하여 슬픔이 지극하였는데, 因果禍福을 늘어놓자 짐차 마음에 틈이 생겼다. 김수온의 형 僧 信眉가 요사한 말을 주창하고, 수온이 「讚佛詩歌」를 지어 그 가르침을 펼쳤다.¹⁴⁾

-
- 13) 『世宗實錄』 卷百二十一, 三十年 九月 辛卯, “金守溫承文院校理 守溫素佞佛者也 其兄僧信眉 造飾僧道 得幸於上 守溫夤緣左右 交結首陽安平兩大君 反譯佛書 若有內佛事 則與司僕少尹鄭孝康 瞑目兀坐 竟日徹夜 合掌念經唱佛說法 略無愧色……諸大君以爲忠於上 上特命除政曹 會無窠闕 姑授是職”
- 14) 『世宗實錄』 卷百二十三, 三十一年 二月 丙子, “上連喪二大君 王后繼薨 悲哀憾愴 因果禍福之說 遂中其隙 守溫兄僧信眉 倡其妖說 守溫製讚佛歌詩 以張其教”

왕실의 계속되는 喪事로 세종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틈에 佛家의 因果禍福이 세종의 마음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이 때 佛事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김수온의 형 信眉였다. 신미는 父親이 면직처분을 받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는데, 이후 高僧이 되어 世宗과 世祖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이처럼 王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高僧을 형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讚佛詩歌」와 같은 讚佛歌를 지어 왕실의 佛事를 감당했으니, 괴애가 당시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世宗과 文宗에 이어 世祖代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王의 寵愛를 받아, 세조 2년(1456) 48세에 成均館 司藝가 되었고, 그 다음해에 重試에서 第二人으로 합격하여 通政大夫 僉知中樞院事로 발탁되었다. 이때 그가 어머니를 覲親하러 永同縣에 가려고 하자, 世祖가 특별히 내시를 보내어 漢江에서 술을 내리고, 臨瀛大君과 永膺大君 등 여러 君들에게 명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58세에 拔英試에 으뜸으로 입격하여 특별히 從一品인 崇政大夫를 加資받았고, 登俊試에서도 으뜸으로 입격하여 判中樞府事에 올랐다. 이때 세조가 김수온의 집이 가난함을 안타깝게 여겨 司饗院에 慶宴을 준비시키고 議政府의 여러 정승들에게는 宮醞을 가져가서 押宴하게 하고, 내시를 보내어 犀帶·錦囊·羅·綺·衣服·靴·帽 따위의 물건 40여건과 鞍馬와 쌀 10석을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손수 詩一首를 지어 치하하였다. 科擧를 설치한 이래로 조정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文科·武科의 壯元에게 쌀을 내리는 것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¹⁵⁾

이처럼 당시 임금들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크게 인정받아 집현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그의 재능은 明과의 외교에 있어

15) 『世祖實錄』卷三十九, 十二年 五月 丙戌.

서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明使臣) 陳嘉猷가 묻기를, ‘누가 金守溫 재상입니까?’하니, 左右에서 김수온을 가리켰는데, 평소부터 김수온이 詩를 잘 짓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¹⁶⁾

일찍이 (김수온이) 明나라 사신 陳鑑의 喜晴賦에 和答하여 흥을 돋우고 기운을 떨쳤는데, 후에 김수온이 중국에 가자, 중국 선비들이 앞다투어 말하길, ‘이 사람이 바로 희청부에 화답한 사람이다’ 하였다.¹⁷⁾

詩 뿐만 아니라 賦에도 재능을 보였던 괴애의 名聲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明나라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文才로 世宗과 世祖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직생활의 대부분을 中樞院에서 관각의 임무를 맡지 못한 채 보냈는데, 그가 비록 文才에는 뛰어났으나 實情에 어둡고 관리로서의 행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財利에도 어두워 평생 淸貧儉約한 삶을 살았는데, ‘늙어갈수록 가난히 더욱 심하여, 이사한 집에는 아직 대문도 없네’¹⁸⁾라는 詩句에서 그의 청빈했던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독특한 사고와 고집스런 성격으로 평생토록 형식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16) 『世祖實錄』 卷十六, 五年 四月 辛酉, “嘉猷問誰是金守溫宰相 左右指之 以素聞守溫能詩也”

17) 『成宗實錄』 卷百三十, 十二年 六月 庚戌, “嘗和大明使陳鑑喜晴賦 蹈厲發越後 守溫入朝 華士爭指之曰 此是和喜晴賦者耶”

18) <甲午元日> 起句와 承句, “老去貧尤甚 遷家未有門”

자신을 단속하는 규율이 없어, 혹 책을 깔고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布衣를 입고 金帶를 띠고 나막신을 신고서 손님을 만나기도 하였다. 성품이 어리석어 세상일에 서투르고, 재주와 도량 없어 治産에 마음을 두었으나 계책이 매우 엉성하였고, 官廳 일에 처해서는 소략하고 잘 지키지 못하니, 글하는 氣象과는 아주 달리하였다.¹⁹⁾

위의 기록으로 보아 그는 아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살았던 개성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乖崖’라는 自號에서도 알 수 있는데, ‘못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의 乖와, 物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뜻의 崖’²⁰⁾는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밝혀 지은 것이다.

괴애 김수온은 儒·佛을 넘나드는 사상적 자유와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개성 강한 성품으로 인해 世人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천부적 자질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詩文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능을 발휘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인이다. 비록 관직이 높지는 않았지만, 學問과 文學에서 자신만의 이상을 펼쳤던 그의 삶은 대체로 큰 굴곡없이 일생을 마칠 수 있었다.

성종 12년(1481) 6월, 73세를 一期로 세상을 마친 후 그가 받은 諡號 文平²¹⁾은, 당시 세인들이 바라본 괴애 김수온의 인물됨이며, 그의 性品을 보여주는 것이다.

19) 『成宗實錄』 卷百三十, 十二年 六月 庚戌, “無檢身之律 或鋪書籍寢處其上 或衣布加金帶履屐見客 性迂拙無幹局有心 治産而居計甚疎 處官事濶略無熟守 殊不類爲文氣象”

20) 『宋史』 卷二百九十三, “乖則違衆 崖不利物” (文淵閣 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1999)

21) 文平은 “勤學好問曰文 惠無內德曰平”이다.

2. 時代的 背景

朝鮮前期는 麗末의 혼란했던 사회적 국면을 바로잡고 朝鮮의 文物制度를 정비해가던 시기이다. 太祖는 田制改革, 奴婢制度 정리, 私兵制의 철폐, 농업과 수공업 장려 등으로 대내적 안정을 꾀하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政治制度와 法制度를 整備하고, 成均館과 鄉校를 세웠으며, 寺刹의 免稅特權을 빼앗는 등 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

世宗은 人才를 양성하여 등용하는 것에 가장 用力하여, 宮內에 集賢殿을 세우고, 國文字를 制定했을 뿐만 아니라, 『高麗史』·『醫方類聚』·『農事直說』 등의 書籍을 편찬하였으며, 活字와 印刷術의 改良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世祖의 여러 治績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經國大典』의 편찬이다. 이미 太祖代에 『經濟六典』, 太宗代에 『續六典』, 世宗代에 『六典騰錄』 등의 法典이 撰定되었는데, 세조는 기존의 法典과 일체의 敎令·典例 등을 綜合 再編하여 『經國大典』을 완성하였다.

成宗은 『經國大典』을 거듭 교정한 뒤, 朝鮮王朝 五百年의 諸般制度를 固定 하였고, 弘文館을 두고서 學士를 모아 經史를 進講하게 하고, 讀書堂을 신설하여 年少文士들에게 讀書製述 專心케 하였다. 또한 편찬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東文選』·『五禮儀』·『樂學軌範』 등 많은 서적을 撰進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던 朝鮮前期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思想的 傾向은 抑佛崇儒이다. 麗末부터 일어난 斥佛運動은 조선 건국초기에 정치부흥과 연관되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世宗 이후 왕실 안에서부터 시작된 崇佛은 이후 士大夫家로 퍼지게 되었고, 결국 조선전기는 표면상 抑佛崇儒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내면으로는 崇佛思想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儒學은 분명 朝鮮前期의 절대이념이었으니, 儒學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이며, 동시에 治世와 民生을 위한 실천이념으로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鄭道傳(1337~1398)은 『朝鮮徑國典』을 수찬하여 새로운 王朝의 모든 制度를 文을 통해 이루었는데, 그는 ‘文은 도를 실는 그릇이며 人文을 말하는 것이다. 그 道를 얻으면 詩書禮樂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혀지고, 三光의 運行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 있으니, 文의 성대함은 여기에서 極에 이른다’²²⁾고 주장하면서 朝鮮建國의 偉業과 文學의 位相을 높였다.

이처럼 儒學을 國是로 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문학은 朱子學을 基調로 하여 道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 즉 文以載道를 근거로 하는 道學的 文學論이 기본적 문학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金宗直(1431~1492)은 ‘經術이 곧 문장의 根本이다’²³⁾라고 하면서 載道文學論을 강조하였는데, 載道文學論은 道本文末의 관점에서, 文을 통해 仁義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朝鮮前期 文壇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유형의 文學論이 나타나고 있었으니,²⁴⁾ 徐居正(1420~1488)은 ‘문은 道를 껴는 그릇이다’²⁵⁾라며 문장이 道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金時習(1435~1493) 역시 ‘문장이 道에 비해서 높은 것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즉, 조선의 문인들은 표면적으로 載道文學論을 주장하면서도, 文以貫道의 效用論的 文學論이 혼재되어

22) 鄭道傳, 『三峯集』 卷三, <陶隱文集序>, “文者 載道之器 言人文也得其道 詩書禮樂之教 明於天下順三光之行 理萬物之宜 文之盛至此極矣” (韓國文集叢刊 卷五) p.342.

23) 金宗直, 『佔畢齋集』 卷一, <尹先生祥詩集序>,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韓國文集叢刊 卷十二) p.413.

24) 윤재민, 『조선시대 문인 학자들의 문학관』,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p.184. 참조.

25) 徐居正, 『東文選』 <東文選序>, “文者 貫道之器” (국역 東文選 卷一, 民族文化推進會, 1977) p.552.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시 문인들이 載道와 貫道의 논란을 떠나 ‘道를 중시하면서도 文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공통된 논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는 道를 근본으로 하는 것에 문학의 목적을 두면서도, 실제 작품 안에서는 文藝美的 價値와 敎化的 效用性 또한 강조한 것이다.

詩는 小技에 불과하나 혹 世敎와 관련이 있다면 君자는 마땅히 그것을 취할 것이 있다.²⁶⁾

서거정의 주장은, 시는 비록 소소한 기예일 뿐이나 시를 통해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君자는 마땅히 시로써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詩經』에 대한 孔子의 效用論的 認識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백성의 性情을 순화시키고 사회개혁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전기의 문학은 국가의 제반현실과 연관을 갖는 實用的 성격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대국을 경시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對明外交를 위한 官僚的 詞章文學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중엽 이후로 兩宋·遼·金·蒙古 등 강국을 섬겼는데, 자주 文詞로써 견식을 드러내며 국가의 환난을 풀었으니, 어찌 詞賦를 소홀히 하리요.²⁷⁾

26)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詩者小技 然或有關於世敎 君子宜有所取之” (李月英 譯註, 月印, 2000) p.196.

27)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高麗中葉以後 事兩宋遼金蒙古強國 屢以文詞見稱 得紓國患 夫豈詞賦而少之哉” (李月英 譯註, 月印, 2000) p.135.

문장을 통해 대국과의 외교를 이끌어 나갔던 당시에는, 관각문인들에게 있어 詞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詞章은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그들의 책임이었다.

조선전기 문학의 주요 담당층인 士大夫는 대체로 중앙관료나 지방지주로서 經國治民을 위해 일했던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현전 출신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國是에 따라 儒敎的 文學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純粹 學問을 중시하는 載道的 文學論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적이고 효용적인 文章과 詩賦를 중시하는 貫道的 文學論 또한 경시하지 않았다. 결국, 朝鮮前期의 文學은 載道와 貫道가 혼재된 양상 속에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Ⅲ. 學問世界와 文學意識

1. 學問世界

전통적 유교 가문에서 태어난 김수온은 유학적 규범을 사회인식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앞서 생애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의 독서벽은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훗날 그가 文才를 인정받으며 중국과의 외교에 큰 몫을 담당했던 전형적인 조선 관각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유년시절의 학습에 대한 결과이다.

과에는 학문하는 체계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순서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

무릇 사람은 크게 涵養한 연후에 큰 抱負가 있고, 큰 포부가 있는 연후에 크게 設施할 수 있다. 평상시에 讀書로 그 이치를 공부하고 論事로 그 자취를 상고하니, 곤궁하여 아래에 있으면 홀로 그 몸을 잘하게 하고, 영달하여 위에 있으면 천하에 뜻을 함께 하니, 어찌 함양한 大 포부가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좋은 때를 만나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위에서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런 연후에 내 포부의 크음을 미루어 내 재능을 나타내고 당세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²⁸⁾

28) 『訥齋集』 卷六, <南原君奏議序>, “夫人有大涵養 然後有大抱負 有大抱負 然後有大設施 平居 讀書以求其理 論事以考其迹 窮而在下 則獨善其身 達而在上 則兼善天下 豈非涵養之大抱負之大者歟 然必其人遭亨嘉之會 吾言之而上聽之 吾行之而人信之 然後推吾抱負之大

이 문장은 김수온이 梁誠之(1415~1482)의 家集에 써준 序文 중 일부이다. 사람은 먼저 크게 학식을 넓혀서 심성을 닦은(涵養) 후에 마음속에 품은 자신 감이나 계획(抱負)이 있고, 포부가 있는 후에 재능을 펼치는 것(設施)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낮은 지위에 있으면 몸을 잘하게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천하를 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큰 포부를 갖고서 좋은 때를 만나게 되면, 큰 재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애의 견해는 지극히 儒家的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誠意正心하여 修身齊家治國平天下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괴애의 師承關係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泰齋 柳方善(1388~1443)의 제자라는 기록²⁹⁾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가능하다. 柳方善은 家禍로 인해 비록 평생 관직의 길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鮮初에 이름을 떨쳤던 많은 文人들을 자신의 門下에서 길러냄으로써 朝鮮前期 館閣文學을 이어준 인물이다.³⁰⁾

결국, 유방선의 제자였던 괴애는 李穡과 鄭夢周의 학풍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괴애의 性理學的 思惟는 당시 조선전기 성리학파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朱子의 학문에 부합하는 사유체계를 보이고 있다.

봄·여름에는 양기가 발달하여 生하지 않는 物이 없는데도 靡草는 죽고,
가을·겨울에는 음기가 肅殺하여 떨어지지 않는 物이 없는데도 국화는 이
내 꽃을 피우니, 어찌된 것인가. 주립계의 太極圖說로 그것을 미루어보면,

可以得現於設施而著名於當世也”(韓國文集叢刊 卷九) p.366.

29) 許筠, 『惺所覆瓿稿』 <答李生書>, “慕齋金安國之師成虛白倪 學於其兄侃及金乖崖守溫 二公皆柳泰齋之弟子 柳公是文靖得意文人也”

30) 泰齋 柳方善은 李穡의 외증손으로, 權近과 卞季良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學脈의 嫡統을 이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門下에서 金守溫, 康孝文, 徐居正, 成侃, 李承召 등 조선전기를 풍미했던 文學之士들이 배출되었다.

陰 가운데에 陽이 있고, 陽 가운데에 陰이 있는 것이다. 一動과 一靜은 서로 그 근원이 되니, 이는 곧 봄·여름은 가을·겨울에 비롯하지 않음이 없고, 가을·겨울은 봄·여름에 비롯하지 않음이 없다.³¹⁾

陰과 陽은 서로 待對되는 개념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陰과 陽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가운데서 만물은 生成하게 된다. 그리고 陰과 陽은 서로의 原因이 되어 結果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성리학적 자연관의 전형적인 例로서,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기인한다.

태극도설에 따르면, 우주만물은 모두 하나의 근본인 理에서 나왔는데, 발현되는 기질이 서로 달라 결국 현상세계에서 물아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다. 괴애는 이 태극도설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자신 나름대로의 理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物에는 크고 작음이 있으나 理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物에는 동물과 식물을 나눔이 있으나 理에는 동물과 식물의 나눔이 없다. 대개 만물은 비록 많으나 다같이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 것이므로, 서품이 비록 다를지라도 각자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理는 남과 다르지 않으므로 남의 리가 곧 자신의 理이고, 사람의 理는 동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동물의 理가 곧 사람의 理이다. 만약 天地陰陽의 원리(머리가 둥근 것이 하늘과 같고, 발이 모난 것이 땅과 같다)로써 사람이라고 하고, 陽이 펴지고 陰이 오므라드는 것을 이르러 物 이라 한다면, 곧 自生의 법칙일 뿐이요, 군자가 道義를 본떠 넓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理가 있는 곳이 곧 내가 벗하는 것이니, 또한 어찌 동식물과 물아의 경계가 있으리오.³²⁾

31) <菊齋記>, “當春夏之時 陽氣發達 無物不生 靡草死焉 當秋冬之日 陰氣肅殺 無物不零 菊乃有花 何也 以濂溪太極之說推之 陰中有陽 陽中有陰 一動一靜 互爲其根也 是則春夏未始不爲秋冬 而秋冬未始不爲春夏也”

비록 사물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그 근원이 되는 理는 모두 하나의 태극에서 나왔다. 따라서 人과 物의 형상은 다를지라도, 人性과 物性の 차별은 없다. 이 문장은 人物性同論³³⁾의 맹아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세기 학자인 김수온의 문장에서 人物性同論의 기초적 이론형태가 보인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理는 불변하는 恒常이므로 자연 안에서 만물은 無差別이고 平等하다. 따라서 人爲를 버리고 자연에 몰입하면 사물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어 物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가 詩에서, ‘마음이 바름에 이르렀을 때 物我的 차이가 없어지고, 도가 통하여 돌아간 곳이 사통팔달의 큰길 같아지네’³⁴⁾라고 말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리고 괴애는 物象의 차이를 배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의 차별 또한 배격하였다.

32) <友蓮堂記>, “物有大小 理無大小 物有動植 理無動植 蓋萬物雖多 同出於一大極 庶品雖殊 各具於一大極 己之理不異於人 而人之理即己之理也 人之理不異於物 而物之理即人之理也 若必以圓頂方足而爲之吾人 陽敷陰歛而爲之彼物 則是自生畦町 而非君子體道之弘也 蓋理之所在 即吾之所友 又安有動植物我之間哉”

33) 人物性同異論은 18세기초 ‘性’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파생된 한국 철학의 주요 논쟁이다. 畿湖學派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인간과 동물(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 人物性俱同論과 人物性相異論으로 논의가 분리된다. 人物性俱同論은 李柬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洛論(서울일대)을 형성하고 ‘性即理’를 주장하였다. 人物性相異論은 韓元震을 중심으로 하는 湖論(충청일대)으로, ‘性即氣’를 주장하였다.

34) <上河東府院君> 六首 中 第三首 頸聯, ‘心到正時無物我 道歸通處若康莊’. 여기서 ‘心到正時無物我’는 『中庸』 首章의 ‘사람과 사물이 생활 때 제각기 부여받은 理를 健順五常의 德으로 삼는데, 이를 性이라 한다(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라는 朱子の 註釋에 근거한 듯하다. 朱子는 ‘本然之性’의 ‘純性’을 강조하여, 이것이 未發時에는 ‘氣質之性’ 역시 선악의 구분이 있을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人性과 物性이 本體論의으로 보면 같다는 뜻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수온의 ‘心到正時無物我’은 곧 未發之心의 관점에서 바라본 견해로 생각된다.

乖崖 金守溫은 六經과 弟子百家에 능통하여 탐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佛經에 있어서는 더욱 深하였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학문을 익히는데는 모름지기 한 책을 숙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해야 한다. 급하게 책을 읽으면 그 의미를 맛보기 어렵다. 나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안정시키기 때문에 읽는 곳마다 모두 통한다.’라고 하였다.³⁵⁾

학문에 대한 편식을 배격했던 그는, 항상 大君들에게 『大學』과 『中庸』이 『法華經』과 『華嚴經』의 微妙함에 미치지 못한다³⁶⁾고 말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유학에만 전념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詩에서, ‘그윽하고 깊은데서 찾지 않고 천박한데서 찾으니 명확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구나’³⁷⁾라고 했던 것처럼, 비록 儒·佛이 서로 학문의 유형은 다를지라도 근원의 이치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 그 목적을 같이한다면, 유교와 불교의 형식적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옛날 성인은 일찍이 인륜을 버리고 종자를 없애는 것을 높이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일찍이 함부로 살해하여 생물의 목숨을 천히 여기어 잔인한 짓을 참지 않았다. 또 다섯 가지의 윤리에 夫婦가 그 중의 한가지며, 羔羊은 자라나는 나무를 꺾지 아니하였고, 孔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아니하였으니, 성현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다. 선왕의 적당한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淸淨寂滅의 도를 말하여서 그의 마음을 일깨우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³⁸⁾

35) 成倪, 『慵齋叢話』 卷四, “金文平公能通六經 諸子百史無不探討 尤深於釋典 嘗謂人曰 學問之功 須要熟讀一書 又當緩而思之 急速則難嚼其味 我操心定性 故觸處皆通也”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2000) p.175.

36) 『世宗實錄』 卷百二十一, 三十年 九月 辛卯, “又常誘大君曰 大學中庸 不及法華華嚴微妙”

37) <上河東府院君> 六首 中 第四首 首聯, “不索幽深即索膚 無人端的下工夫”

38) <贈敏大選序>, “古之聖人 未嘗去人倫滅種類以爲高 亦未嘗濫殺戮賤物命以爲忍 又五典

그가 추구한 것은 儒敎도 佛敎도 아닌 사상과 종교를 초월한 근원의 이치이다. 그는 先王의 道가 아닌 것을 말하는 異端보다는, 淸淨寂滅의 道를 통해 마음을 일깨워주는 佛敎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儒敎와 佛敎는 형식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마음을 일깨워 善을 행하는 것을 美德으로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 둘은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근원의 이치를 구하는데 있어 儒·佛의 형식적 차이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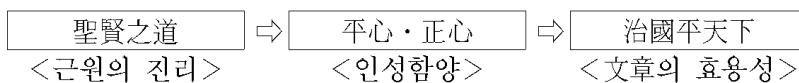
이처럼 지극히 전통적인 유학적 사유에서 출발한 그의 학문은, 그러나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망해 볼 때, 다분히 儒·佛의 조화적 색채를 견지해 나갔다. 그의 학문의 목적은 근원의 이치를 추구하여 卍心을 얻고, 그로 인해 정치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儒家의 전형적이 도식체계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佛敎의 心性修養의 요소가 가미되어 나름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³⁹⁾

아집과 자신만의 세계가 강했던 괴애는 학문과 사상의 폭이 매우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추구했던 道는 儒·佛의 외형적 형상을 초월하는 근원적 진리의 세계로서 그의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결국 그는 학문의 근본을 儒敎의 經學에 두고 출발하였지만, 평생을 심신수련을 통한 佛敎的 求道를 실천함으로써 儒·佛思想 모두를 나름대로 조화하

之倫而夫婦居一 高柴之不折 夫子之不網 聖賢之爲心 可見 典其道非先王之法言 不惟愈於口淸淨寂滅之道 以醒其心子”

39) 김수온의 學問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法古創新)’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옛것은 儒家의 道心이며, 새로운 것은 곧 實用的인 것이다. 그런데 근원의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그는 佛敎의 心性修養의 요소를 가미시켜 儒·佛調和의 學問世界를 구축하였다.



여 수용하였다. 근원적으로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동일한 목적 하에서 외형적 차이를 떠나 儒·佛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은, 목적지향형의 학문적 특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특성은 그의 문학의식 속에 반영되어 작품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⁴⁰⁾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그의 학문세계가 문학의식으로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 어떠한 문제의식을 정서적으로 표출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文學意識

괴애는 당시의 載道的 文學論을 바탕으로 문학의 效用성과 實用성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여기에 儒·佛을 調和시키고자 하는 학문적 특성이 결부되어 그의 문학적 특색이 갖춰졌다.

儒者로서 평생을 관직에 머물렀던 그는 뜻을 얻어 세상에 나가 어진 임금을 보좌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학문의 理想을 두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文을 통해 道를 구현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즉, 괴애는 ‘詩文을 통한 民心의 教化’라는 유교적 윤리관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였다.

유자는 성현의 글을 읽고 성현의 뜻을 밝혀, 先後와 本末로 다스리는 서열을 갖추고 배풀기를 익숙하게 해야 한다.⁴¹⁾

이 문장은 괴애의 문학에 대한 인식으로, 法古創新을 강조했던 宋代 詩文革

40) 문학작품은 그것을 쓰는 사람의 문학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 작가의 처세 및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41) <民和樓記>, “儒者也 讀聖賢之書 明聖賢之旨 先後本末 爲治之序 講之熟矣”

新運動의 선구자인 柳開(947~1000)의 문장⁴²⁾과 비교될 수 있다. 柳開의 주장은 文에는 社會的 倫理는 물론 現實的 治世의 道가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聖賢의 글을 통해 그 명확한 뜻을 밝히어 治世와 民生에 도움이 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펼치는 것이 儒者의 소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法古를 통해 創新하겠다는 그의 문학적 의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육경의 文은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은 도를 마음에서 얻어 몸에 행하고 사업에 시행한다. 또한 천하와 후세의 군왕과 신하들이 반드시 오늘날 내가 친히 경험한 것같이 하고자하여 그것을 글로 적었다. 그리하여 二帝와 三王의 정치를 기술하니 典謨의 訓이 있고 인륜과 성정의 바름을 나타내니 雅頌의 音이 있고 王道를 높이고 霸道를 배척하니 이에 春秋를 지었고,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시행하여 이에 주역을 讚하였으니 천하를 다스리는 大經大法이 모두 여기에 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히 육경의 문을 통하면 성인의 도를 알 수 있고, 능히 성인의 도를 알면 반드시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法을 讚明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君王이 그것을 쓰면 安富尊榮의 뜻을 들을 수 있고 子弟가 그것을 따르면 聖賢의 成法을 배울 수 있다.⁴³⁾

儒者는 반드시 먼저 聖人의 道를 체득한 후에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君王은 安富尊榮의 뜻을 들을 수 있고, 子弟는

42) 柳開, 『河東集』 卷三, <漢史揚雄傳論>, “能言聖人之辭 能明聖人之道 則是聖人也” (文淵閣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1999)

43) <同知成均林公守謙所受諭書後記>, “六經之文 聖人之言也 聖人得之於心 行之於身施之於事業 又欲天下後世之爲人君爲人臣者 必如今日吾身之所親驗 故筆之於書 述二帝三王之政 則有典謨之訓刑 人倫性情之正 則有雅頌之音 尊王黜霸 於是乎作春秋 開物成務 於是乎贊易 治天下之大經大法 皆在於此 吾故曰 能通六經之文 則能知聖人之道 能知聖人之道 則必有以講明治天下國家之法 時君用之 則得以聞安富尊榮之義 子弟從之 則得以學聖賢之成法”

聖賢의 成法을 배워 治世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孔子가 詩經을 즐겨 탐독하면서, 治道와 人性을 논할 때 자주 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과 같이, 괴애 역시 文을 통해 治國과 教化에 큰 비중을 두어 백성의 性情이 溫柔敦厚해지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의 道를 추구하는 것을 문장의 기본으로 삼았던 그는, 詩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시를 지어 가져다가 괴애 선생에게 바로잡아주실 것을 청하였더니, 선생이 말씀하시길, ‘젊은이에게 文法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書法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글을 짓는 기술은, 먼저 氣를 넓혀야 하고, 글자를 쓰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다.⁴⁵⁾

시를 짓기 전에 먼저 氣를 넓히고, 글자를 쓰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바로잡아야 제대로 된 시문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孟子』의 ‘浩然之氣’와 ‘持其志’를 통한 심신의 수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作文의 기술과 作字의 방법을 모두 ‘正心’에 기초하여,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많은 배움을 쌓은 후에 비로소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聖人의 문장을 읽고 그 道를 터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인 문장은 治世와 民生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괴애는 국가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道의

44) 『孟子』 「盡心上」, “公孫丑曰 詩曰不素餐兮 君子之不耕而食何也 孟子曰 君子居是國也 其君用之則安富尊榮 其子弟從之則 孝弟忠信 不素餐兮 孰大於是”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p.726.

45) 南孝溫, 『秋江集』 卷七, “余少時 持賦詩要點抹於乖崖先生 先生曰 小子文法可教 而書法殊不類 作文之術 先廣氣 作字之法 先正心” (韓國文集叢刊 卷十六) p.128.

추구를 목표로 삼고서, 문장의 效用性和 實用性を 강조하였다.

무릇 經學과 詞學은 모두 儒者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대개 聖人의 道는 六經에 실려있으니, 능히 六經의 文을 통하면 聖人의 道를 밝혀, 그 효력이 세상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이른다. 그러므로 詞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經學에 비교될 것이 아니다. …… 간혹 聖賢들의 자취를 기뻐하여 옛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일년 내내 골몰하며 밤낮도 가리지 않고 입을 부르뜨게 만들고 정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에게 帝王이 傳受한 뜻과 性命 道德의 精微한 것을 물으면 ‘나는 알지 못하다’라고 하니 武人과 俗吏들이 그를 가리켜 웃음거리로 여기고 그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章句之道요 腐儒之輩이니 내가 말하는 經學이 아니다.⁴⁶⁾

괴애는 經學을 우위에 두기는 했지만, 文藝의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詞章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경학과 사장은 당초에 그 지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경학은 道의 표출이나 教化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장은 文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적 기교를 중시한다. 그러나 괴애는 이 둘을 별개로 보지 않고, 詞章文學을 道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괴애는 詩評에 대해서도 짧지만 분명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그가 서거정에게 써준 <東人詩話序>에서 그 편린을 알 수 있다.

46) <同知成均林公守謙所受諭書後記>, “夫經學與詞學 皆儒者之重事 蓋聖人之道 載之六經 能通六經之文 則所以能明聖人之道 而其效可至於爲斯世斯民之幸 詞學雖重 非經學之可比也……間有悅聖賢之餘緒 知古書之可讀 兀兀窮年 焚膏繼晷 腐脣齒弊精神 問之帝王傳受之旨 性命道德之微 則曰我不知 宜乎武人俗吏指以爲嗤而不之重 此乃章句之徒 腐儒之輩 非吾所謂經學也”

내가 일찍이 생각건대, 시의 나쁜 점을 안 연후에야 시의 바름을 알 수 있고, 시의 바름을 얻은 뒤에야 함께 시의 道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식하고 바른 군자들이 作品을 평가하는 品評과 字句를 침삭하는 點化가 없을 수 없다.⁴⁷⁾

그는 시의 正雅와 變雅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시의 道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시의 최종목표는 道에 있으므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品評하는 것은 道를 함양하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時代的 背景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문인들은 朱子의 道學的 文學論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文以載道의 문학론을 거듭 강조하였고, 실제 작품 안에서 이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文壇에서는 작품의 效用성과 藝術性 또한 경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괴에 역시 聖人을 본받아 聖人의 道를 구현하는 것에 文學의 목적을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요구되었던 實用的 文學 또한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했었다.

47) <東人詩話序>, “予嘗謂知詩之惡後 可以得詩之正 得詩之正 然後可與言詩之道 是故博雅君子 不能無評品之權衡 雌黃之點化”

IV. 詩世界

詩世界에서는 김수온의 문집 『拭疣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크게 形式上 特性과 內容上 分類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형식상 특성에서는 詩型, 押韻, 疊語, 對偶로 나누어, 그의 시가 어떠한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후, 내용상 분류에서는 그의 작품세계를 儒家的 삶의 追求, 儒·佛 思想의 調和, 旅情의 感慨, 山水에서의 興趣로 나누어 그가 추구했던 문학적 이상과 작가로서의 소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形式上 特性

『拭疣集』은 成宗 12年(1481)에 甲辰字로 校書館에서 印行되었으나 화재로 完帙이 전하지 않고, 卷二와 卷四만 落帙本으로 전하고 있다.

이후 1673년에 14代孫 金禹濬이 『續東文選』과 『東國輿地勝覽』, 그리고 家狀 등에서 詩文을 筆寫하여 落帙本과 함께 一冊으로 엮었는데, 落帙本에는 훼손된 부분이 많아 몇 수는 毛筆로 追補하였다. 그리고 <敬題拭疣集後>를 써서 『拭疣集』이 간행된 경위를 밝혔다.

1961년 宗孫 金洛中에 의해 新活字로 重刊되었는데, 卷二와 卷四에 金禹濬이 筆寫한 補遺集을 添入하여 二冊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순서를 바로잡고, 시문을 추가하였으며, 판독이 불가능한 작품은 삭제하였다. 또한 卷二 뒤에는 附錄을 덧붙였는데, 이 附錄은 18代孫 金貫鉉이 『東人詩話』, 『惺叟詩話』, 『慵

齋叢話』, 『世祖實錄』 등에서 자료를 集錄한 것이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拭疣集』은 民族文化推進會에서 발행된 韓國文集叢刊本이다. 한국문집총간본은 原集 二卷(卷二, 卷四)과 寫本인 補遺 一卷을 합하여 一冊으로 한 것으로, 卷二에는 記 35篇과 序 1篇이 있고, 卷四에는 賦 2篇과 詩 212題가 실려있는데, 상당수의 시에는 저자의 自註로 보이는 小註가 있다. 補遺에는 體別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詩 3題, 五言古詩 5題, 排律 3題, 序·碑銘·雜著이 7篇, 箋·讚·行狀·墓誌·神道碑銘·贊·祭文이 각각 1篇씩 실려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金禹濬이 쓴 <拭疣集題後>가 있다.

그러나 총 212題의 시 중에서 같은 시가 두 번 실린 경우와⁴⁸⁾ 김시습이 김수온에게 화답하여 준 詩⁴⁹⁾를 제외하고 나면, 『拭疣集』에는 모두 207題의 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拭疣集』所載 207題의 詩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체적인 시형과 압운의 특성을 살핀 후, 그의 시에서 자주 보이는 첩어와 대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詩型

詩型은 詩句의 字數에 따라 4言·5言·6言·7言·長短句·雜體 등으로 분류하고, 詩句의 결합형태에 따라 絶句·律詩·排律·古體·樂府 등으로 분류하며, 몇 首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短詩와 聯詩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⁰⁾

48) <題長湍客軒>, <送文郁沙彌入香山>, <送安俊爲安峽縣監>, <吉昌權公榮親詩>는 卷四에도 실려있고, 補遺에도 실려있다.

49) <梅月堂答詩>는 김수온이 보낸 <贈淸寒梅月堂金說卿時習>에 김시습이 화답한 시로서, 補遺에 이 두편의 시가 같이 실려있다.

『拭疣集』所載 詩를 살펴보면, 古詩보다는 대체로 정형화 된 近體詩의 형식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 絶句보다는 律詩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하나의 題目아래 七言絶句의 聯作詩 또한 자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 형식에 따라 내용 또한 구분된다. 스님들과 交遊하며 지은 詩에서는 七言絶句의 聯作詩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절구시를 씀으로써 내용면과 형식면에서 모두 담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반면, 儒臣들과 交遊하며 지은 詩에서는 주로 七言律詩를 聯作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들은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설리적인 느낌을 준다.

또 山水에서의 興을 노래한 詩는 주로 七言律詩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山寺詩는 거의 모두 七言律詩로 쓰여졌다. 自然의 景物을 읊은 詠物詩는 식물을 읊은 것과 동물을 읊은 것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植物을 노래한 시는 대체적으로 五言律詩가 많은데, 시에 典故가 많이 사용되었고, 표현기교 역시 다양해서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반면, 동물을 묘사한 시들은 七言絶句가 많이 보이는데, 형식과 내용이 모두 경쾌하고 생동감 넘친다.

古詩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四言·五言·六言의 다양한 體가 보이고 있는데, 『식우집』이 거의 유실되었고, 현재 전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임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古詩가 보인다는 것은 자유분방했던 그의 성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괴애는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 학문세계와 자유로운 성격으로 독특한 문학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의식세계는 시의 형식에 반영되어 다양한 詩型으로 표현되고 있다.

50) 吳戰壘, 『중국시학의 이해』 (유병래 역, 태학사, 2003) pp.313~314. 참조.

2) 押韻

괴애 시의 특징 중 하나는 압운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압운이란 시에서 같거나 유사한 음을 되풀이하여 음율적 효과를 내는 수사법이다. 清代 周濟는 ‘東韻과 眞韻은 관대하고 평이하며, 支韻과 先韻은 정밀하고 매끄러우며, 魚韻과 歌韻은 길게 이어지고, 蕭韻과 尤韻은 격앙되는 음조가 있다’⁵¹⁾라고 하였는데, 괴애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운자들의 특성을 골고루 맞볼 수 있다.

그의 시에서 압운은 平聲韻이 仄聲韻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成俔이 『慵齋叢話』에서 ‘시는 또한 호건하여 깊이 골수를 얻을 수 있으나, 천성이 檢束에 구애됨이 없어 압운이 부정하다’⁵²⁾이라고 評한 것과 같이, 그는 시에서 자신의 강한 개성을 표현한 결과 押韻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通韻을 사용한 유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의미상 통하기 위해 換韻한 유형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압운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의 자유분방한 성품과 연관이 있다. 유와 불을 넘나들며 근원의 이치를 추구했던 그의 자유분방한 기질이, 시 안에서 격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사상체계를 이뤘던 괴애의 성품은, 詩 안에서 압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

51)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東眞韻寬平 支先韻細膩 魚歌韻纏綿 蕭尤韻感慨” (文學과 知性社, 2000) p.240. 재인용.

52) 成俔, 『慵齋叢話』 卷九, “詩亦豪健 深得骨髓 然性不拘檢 押韻不正”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2000) p.237

3) 疊語

과에 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수사기교는 첩어의 반복적 사용이다. 첩어는 동일한 단음절의 단어를 중복하는 것으로 重言이라고도 하고, 疊字라고도 하는데, 『詩經』 이래 中國詩歌에서 애용되어 온 수사법 중 하나이다.

첩어의 사용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표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심화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형식면에 있어서는 글자와 발음을 정련하여 음악적 절주감과 생동감을 일으켜서 그 시를 읊조리는 사람들의 感興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⁵³⁾ 첩어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文心雕龍』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들이 事物에 감흥하여 일으켜 연상하는 것에 다함이 없고, 만물사이에서 노닐며 감상하고, 보고 듣는 가운데에 깊이 음미한다. 천기와 사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은 이미 경물을 따라 변화가 무궁하고, 문체를 운용하고 소리를 묘사하는 것은 또한 마음과 함께 배회한다. 그러므로 灼灼은 복숭아꽃의 고운 것을 형용하였고, 依依는 버들의 모양을 묘사하였고, 杲杲는 떠오르는 해의 모습이고, 濛濛은 내리는 눈의 모습을 본떴고, 啾啾는 꾀꼬리의 소리를 따른 것이고, 嚶嚶는 풀벌레의 노래를 흉내낸 것이다.⁵⁴⁾

첩어는 언어의 리듬감을 통해 시의 음악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소리나 형

53) 李再薰, 「毛詩 疊字에 對하여」, 『中國語文論叢』 Vol.1. (中國語文研究會, 1988) p.45. 참조.

54) 劉勰, 『文心雕龍』 「物色」, “是以詩人感物 聯類不窮 流連萬象之際 沈吟視聽之區 寫氣圖貌 既隨物以宛轉 屬采附聲 亦與心而徘徊 故灼灼狀桃花之鮮 依依盡楊柳之貌 杲杲爲出日之容 濛濛擬雨雪之狀 啾啾逐黃鳥之聲 嚶嚶學草蟲之韻” (熊憲光 主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6) pp.128~129.

상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첩어의 지나친 사용은 오히려 시의 리듬감을 해치고 자칫 요점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宋代 葉夢得은 첩어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詩에서 첩어를 쓰기란 지극히 어려우니, 모름지기 七言과 五言 사이에서 다섯 글자나 세 글자를 제외하고, 두 글자에서 精神과 興致가 모두 나타나야만 마야호로 정교한 것이다.⁵⁵⁾

葉夢得은 위 문장을 통해 첩어의 신중한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五言詩 혹은 七言詩에서 첩어를 사용하면, 詩意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첩어는 반드시 詩의 大意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짧은 시구 안에서 사물의 소리와 유형, 색채의 느낌을 한 글자로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첩어는 시 안에서 動態的 또는 靜態的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생동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글자의 반복으로 인해 시의 리듬감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첩어의 사용은 시의 리듬감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첩어의 사용은 형식적인 운율감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 詩意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잘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괴애는 시에서 사물의 특성과 자연경관을 묘사하는데 있어 매우 다양한 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횟수 또한 매우 빈번하다. 김수온의 시작품에 보이는 첩어의 종류와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5) 葉夢得, 『石林詩話』 卷上, “詩下雙字極難 須使七言五言之間 除去五字三字外 精神興致全見於兩言 方爲工妙” (文淵閣 四庫全書, 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1999)

6회	悠悠
4회	寂寂
3회	時時 夜夜 年年 溫溫 寥寥 蒼蒼 處處 青青 昏昏 煌煌
2회	家家 箇箇 袞袞 團團 滔滔 忙忙 紛紛 肅肅 雙雙 涼涼 歷歷 盈盈 兀兀 隱隱 人人 一一 切切 萋萋 草草 飄飄 赫赫
1회	啾啾 高高 區區 急急 諾諾 落落 變變 南南 浪浪 凜凜 冬冬 騰騰 漠漠 茫茫 蟻蟻 杳杳 霧霧 聞聞 密密 潑潑 白白 甫甫 步步 非非 歲歲 蕭蕭 颼颼 諄諄 瑟瑟 承承 是是 深深 治治 藥藥 兩兩 連連 冽冽 營營 往往 遙遙 擾擾 喁喁 汙汙 芸芸 鬱鬱 融融 倚倚 猗猗 易易 翼翼 潏潏 日日 粒粒 字字 潺潺 將將 井井 淙淙 種種 蠢蠢 唧唧 遲遲 秩秩 粲粲 燦燦 攢攢 采采 招招 寸寸 層層 沉沉 沈沈 皤皤 波波 翩翩 閑閑 行行 渾渾 忽忽 桓桓 皇皇 颯颯 熙熙

현재 전하는 『拭疣集』 소재 시에는 116가지의 첩어가 165번이나 쓰였다. 사용된 첩어는 소리·색채·상태·행동묘사 등 형용어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詩語로도 쓰여 그 사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각 상황별로 다르게 쓰인 첩어가 시에서 어떻게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㉓ 𧈧非蚊蚋尾非蜂 주둥이는 모기도 아니고 꼬지는 벌도 아닌 것이,
但得營營几案中⁵⁶⁾ 헛되이 책상 주위에서 앵앵거리며 있네.
- ㉔ 唧唧但聞終夜響 찌르륵찌르륵 밤새 우는 소리 들리더니,
不曾求食出朝陽⁵⁷⁾ 아침되서는 먹이 구하러 나오지도 않네.

위의 첩어는 곤충의 독특한 울음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같은 의성어의 사

56) <蠅>

57) <蚋>

용은 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㉔에서는 책상 주변을 날아다니는 파리의 생김새와 소리를 세심한 관찰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시구이다. ‘앵앵’거리는 파리 소리는 파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익살스런 재치가 묻어나는 표현이다.

㉕에서 밤새도록 ‘찌르륵찌르륵’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는 단순히 곤충의 울음소리를 넘어 청량한 가을밤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통해 전체 시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㉖ 皤皤元老 머리 희끗희끗한 원로대신,
 褒衣博帶⁵⁸⁾ 큰 옷과 넓은 띠를 둘렀네.

㉗ 歲暮窮陰盡 한해 저물어 음기의 盛함도 다해가는데,
 靑靑獨自芳⁵⁹⁾ 푸르고 푸르름이 유독 홀로 꽃답구나.

여기서 첩어는 사물의 색채를 강조하여 시각적 형상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㉔에서는 사람 신체의 일부를 색채로 부각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연륜과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알려주고 있다. ‘흰 머리카락’이라는 표현하는 것보다 ‘희끗희끗’이라고 하는 것이 시어로서의 느낌을 살려주어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㉕에서 쓰인 첩어는 색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했다. ‘질푸르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푸르고 푸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색상의 선명도가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58) <吉昌權公榮親詩>

59) <傲雪蘭>

㉓ 處處飛鳴四散回 곳곳을 날아다니며 우는소리 사방에 흩어졌다 돌아오니,
野禽寧有主翁哉⁶⁰⁾ 들새에게 어찌 늙은 주인장이 있으리요.

㉔ 一輪明月清風陳 하나의 둥글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 펼쳐진 속에서,
魂夢如今夜夜飛⁶¹⁾ 정신은 꿈꾸듯 지금처럼 밤마다 밤마다 날아가리.

위 시구에서 첩어는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전체적 시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㉓에서 ‘處處’는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까마귀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處處’는 단순히 ‘곳곳’이라는 의미를 넘어 자유로이 거리낌 없이 날아다니는 까마귀의 자유분방한 모습까지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㉔는 맑은 밤 휘영청 떠오른 둥근 달과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작가의 맑은 정신세계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여기서 ‘夜夜’는 맑은 밤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맑은 정신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夜’는 두 번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시의 리듬을 한 템포 느리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는 청량하고 적막한 밤의 여운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㉕ 矮榻已空春寂寂 낮은榻 벌써 비어 봄인데도 적적하여,
主人携客泛扁舟⁶²⁾ 주인이 객을 끌고서 조각배를 띄운다.

60) <鳥>

61) <次吳孝永監察韻>

62) <題鄭府尹山水屏>

㉔ 秋夜沈沈明月靜 가을밤 깊어만 가고 밝은 달만 고요하니,
巖山何處定跼趺⁶³⁾ 푸른 산 어느 곳에서 가부좌 틀고 있겠지.

위의 첩어들은 사물의 이미지를 통해 주변 분위기를 형상화함으로써 작가의 추상적 심리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㉔에서 ‘寂寂’은 주변의 이미지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가 자신의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㉔의 ‘沈沈’ 역시 깊어 가는 가을밤의 이미지를 형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자연경관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느낌을 묘사한 것이다. 결국, ‘寂寂’과 ‘沈沈’은 작가의 감정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괴애는 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詩意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첩어 사용을 통해 자연물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또한 그는 첩어를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추구하여 시를 읊조리는데 흥을 불어넣고 있다.

4) 對偶

詩에서 對偶는 한 聯의 上下句가 字數·構造·品詞는 같지만 平仄이 서로 상대되어, 형식과 내용이 모두 대칭을 이루는 수사기교로, 對仗이라고도 한다. 對偶는 律詩의 頷聯과 頸聯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시의 내용을 집중시켜 의미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운율을 조화롭게 만들어 읊조리는데 리듬감을 살려주고 시의 음악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내용과 형식에서 조화로운 對를 이루는 경우, 시를 암기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

63) <億兄>

다. 대우의 사용에 대한 기본원리는 『文心雕龍』에서 보이고 있다.

조물주가 형체를 만들 때 四肢는 반드시 쌍으로 만들었으니, 조화의 작용은 사물이 고립되게 하지 않는다. 대저 마음에서 우러난 문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하면서 위아래가 서로 필요로 하여 자연히 대우관계를 이룬다.⁶⁴⁾

만물이 짝을 이루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문장이 對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지나친 對偶의 사용은 오히려 문장을 진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의 기계적 짝맞춤으로 전락해 버리므로, 시에서 대우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용이 훌륭히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自然 속에 숨어있는 대조적 국면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다.⁶⁵⁾

일반적으로 대우의 종류에는 平頭對, 同類對, 垂珠對, 互成對, 疊韻對 등이 있는데, 김수온의 시에서는 平頭對, 同類對, 垂珠對가 많이 보인다.

먼저 平頭對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두대는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兩句로 나눈 것으로 字意와 字性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㉔ 治民要清簡 백성을 다스림에는 청렴하고 간결해야하고,
試士黜華浮⁶⁶⁾ 선비를 시험 보임에는 부화한 것을 버리리.

㉕ 詩酒可供賓主意 시와 술은 손님과 주인의 뜻을 받들만하고,
笙歌解破古今愁⁶⁷⁾ 악기와 노래는 예와 지금의 근심을 없애주네.

64) 劉勰, 『文心雕龍』 「麗辭」, “造化賦形 支體必雙 神理爲用 事不孤立 夫心生文辭 運裁百慮 高下相順 自然成對” (態憲光 主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6) p.96.

65) 劉若愚, 『中國詩學』 (李章佑 譯, 同和出版社, 1984) p.217. 참조.

66) <次金山韻>

67) <丁丑年陪明使陳內翰鑑高太常閨遊於漢江及楊花渡船中次高韻>

㉔ 峯巒嶮峯高僧窟 산봉우리가 뽕족뽕족한 것은 고승의 굴이고,
花雨繽粉聖者天⁶⁸⁾ 꽃비가 어지러이 내리는 것은 성자의 하늘이네.

㉔에서는 治民 - 試士, 清簡 - 華浮가 서로 對를 이루어 선비로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對를 이루고 있다.

㉕는 손님을 배행하여 주연을 베풀며 노니는 모습을 읊은 시구이다. 여기서는 詩酒 - 笙歌, 賓主 - 古今, 意 - 愁가 서로 대를 이루어 詩才를 겨루며 호탕하게 노는 선비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㉕는 山寺에서 바라본 정경을 읊은 시이다. 峯巒 - 花雨, 嶮峯 - 繽粉, 高僧 - 聖者, 窟 - 天이 서로 對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 시구는 ㉔, ㉕에서와 달리 동사를 사용하지 않은채 감각적인 명사와 형용사만으로 분위기를 끌어내고 있어 더욱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同類對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同類對는 出句와 對句의 내용이 서로 같은 족속의 것으로, 天文·地理·干支·草木·花果·動物·人名·數字 등이 對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㉖ 桃花有千葉 복숭아꽃 수천 송이 피어있고,
一朶共三芳⁶⁹⁾ 한 줄기마다 세 꽃이 함께하네.

㉗ 金石不磨元有質 금석은 갈지 않아도 본래 바탕이 있고,
芝蘭恒郁謝無時⁷⁰⁾ 지란은 항시 성해도 지는데 때가 없네.

68) <空上人受陸行法主詩因題一首>

69) <三色桃>

70) <題學生金蘭契遊伴水圖>

㉔ 翠石半天高可仰 푸른 암석은 하늘에 솟았으나 우러러 볼만하고,
 大江連海遠堪盱⁷¹⁾ 큰강은 바다에 이어져있으나 멀리 볼 수 있네.

㉔는 새하얀 복사꽃이 만발해 있는 모습을 묘사한 시구로, 桃花 - 一朵, 千葉 - 三芳이 서로 對를 이루고 있다. 出句와 對句는 서로 같은 복사꽃을 묘사하고 있는데, 出句는 꽃이 만발해 있는 복숭아나무 전체의 모습이고, 對句는 그 중 하나의 가지에 시선을 집중시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桃花 - 一朵, 千葉 - 三芳의 對는 시야를 좁혀나가는 모습을 숫자가 적어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조화로운 對를 이루고 있다.

㉔에서는 金石 - 芝蘭, 有 - 無, 質 - 時가 서로 對를 이루고 있다. ‘金石’과 ‘芝蘭’은 비록 서로 다른 類의 자연물이지만, 의미에 있어 이 둘은 변하지 않는 질개 혹은 지조를 형상화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내용상 서로 대를 이루어 詩意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㉔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바위와 면면히 이어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의 모습을 묘사한 시구이다. 翠石 - 大江, 天 - 海, 高 - 遠, 仰 - 盱이 對를 이루어 어우러져서 요원한 자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괴애의 시에서 매우 자주 보이고 있는 垂珠對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垂珠對는 같은 字를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出句와 對句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서로 對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㉕ 年年欲歸去 매년 벼슬 버리고 돌아가려 했으나,
 歲歲但彷徨⁷²⁾ 해마다 단지 방향만 하고 있구나.

71) <寧國寺>

72) <戊戌年門帖>

㉔ 山遙海濶團團月 아득한 산과 드넓은 바다 사이로 둥근 달 떠오르고,
沙白花紅箇箇松⁷³⁾ 흰 모래톱과 붉은 꽃 사이로 날날이 소나무 서있네.

㉕ 鬱鬱深深百川洞 울창하고 깊은 백천동에서,
高高杳杳上兜率⁷⁴⁾ 높고 아득한 도솔천에 올랐네.

㉔에서 ‘年年’과 ‘歲歲’는 모두 시간과 관련된 시어로서, 현실을 떠나지 못하고 오랜시간 방황하고 있는 작가의 내면 갈등을 대변해 주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첩어를 垂珠對함으로써 반복되어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㉔에서 쓰인 ‘團團’과 ‘箇箇’는 ‘月’과 ‘松’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해주는 시어로서, 고요하고 청신한 느낌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시구는 山 - 沙, 海 - 花, 月 - 松 등의 명사는 上下句가 서로 對를 이루면서, ‘遙’와 ‘濶’, ‘白’과 ‘紅’은 같은 句 안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다.

㉕는 앞의 ㉔, ㉔의 시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 구에서 첩어를 두 번씩 반복 사용함과 동시에 上下句가 서로 垂珠對를 이루고 있다. ‘鬱鬱’과 ‘深深’은 鬱深함을, ‘高高’와 ‘杳杳’는 高杳함을 더욱 강조시키기 위하여 두 번씩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상 ‘鬱鬱’과 ‘深深’, ‘高高’와 ‘杳杳’는 같은 구 안에서 對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는 上下句가 서로 對를 이루어, 시를 읊조리는데 있어 완벽한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살펴볼 對는 일반적으로 근체시에서는 지양하는 형태의 대구이다.

73) <次韻送江原監司朴相公禱>

74) <贈上人歸五臺>

㉓ 我欲愛花花滿園 내가 꽃을 사랑하고자 하면 꽃이 정원에 가득하고,
我欲愛木木在目⁷⁵⁾ 내가 나무를 사랑하고자 하면 나무가 눈앞에 있네.

㉔ 上人心似涪江水 상인의 마음은涪江의 물과 같고,
上人行似涪江沓⁷⁶⁾ 상인의 행동은涪江의 아득함과 같네.

㉓와 ㉔는 上下句에서 줄곧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의 시구이다. 근체시에서는 시의 格을 해치기 때문에 이처럼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도리어 작가의 詩意는 더욱 분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㉔의 시구에서 心과 行이 유달리 더 돋보이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상으로 괴애 시의 疊語와 對偶를 살펴본 결과, 그는 시 안에서 음악적 리듬감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감각적인 시의 흐름을 위해서는 다소 과감한 수사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수사기교는 시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詩語들이 대체로 매우 평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소 파격적인 疊語와 對偶의 사용은 그의 시를 특징지어줄 만한 수사기교이며, 그의 개성의 표출임을 알 수 있다.

75) <春陽君竹屏>

76) <送涪松廣>

2. 內容上 分類

내용상 분류에서는 괴애 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 儒家的 삶의 追求, 儒·佛思想의 調和, 旅情의 感慨, 山水에서의 興趣로 나누어 그의 시세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儒家的 삶의 追求

한평생을 관직에 머물며 儒者로서의 삶을 살았던 괴애는, 불교를 信奉하여 당시 많은 儒臣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분명 그는 학문의 근본을 유학에 두고서, 館閣文人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었다.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 가장 추앙하는 인물로 언제나 李穡을 꼽았는데, 梁誠之에게 써준 家集 序文에서도 ‘우리나라 문장의 鉅公은 牧隱과 陶隱에 더할 수 없다’⁷⁷⁾라고 말하고 있다.

當時牧隱峯高山	당시 목은은 힘준하고 높은 산이었으니,
諸子齋驅各據鞍	제자들 나란히 말몰며 각기 걸터앉았네.
卓犖圃峯難企及	걸출함은 포은과 삼봉 미치기 어려웠고,
清新權李可交權	청신함은 권근과 이송인 함께 기뻐할 만 했네.
詩篇得覽梅軒集	시편은 매헌집을 빌려다가 살펴보니,
才品何如府院斑	재주와 품격이 어찌 부원군과 같은가.
恨我晚生先進後	내가 선생들의 뒤에 태어난 것이 한스러우니,
周旋不得立其間 ⁷⁸⁾	머뭇머뭇거리다 그 사이에 서지는 못한다네.

77) 『訥齋集』 卷六, <南原君家集序>, “吾東方文章鉅公 如牧隱陶隱不可尙已” (韓國文集叢刊 卷九,) p.366

이 시는 南原君 梁誠之에게 빌렸던 『梅軒集』⁷⁹⁾을 돌려주면서 읽고 느낀 점을 적어 준 것이다. 그는 시에서 이색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首聯에서 목은과 더불어 그 문인들의 齊驅並進하는 위풍당당한 모습까지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頷聯에서 鄭夢周와 鄭道傳의 걸출함은 이색에 미치지 못하지만, 權近과 李崇仁의 청신함은 함께 어울릴 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麗末鮮初 성리학의 대가들로서 전통적 학문의 계보를 잇는 인재들이다. 頸聯에서 『매헌집』을 본 후 權遇의 학식과 文才에 찬사를 보내면서, 마지막 尾聯에서는 그런 名儒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 시는 성리학의 맥을 잇는 선인들의 學識과 文才를 상기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은근하게 자신의 文才가 그들과 겨룰 만 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스스로 학문적 소양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성리학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였던 괴애의 학문적 성향은 金時習(1435~1493)과의 唱和詩에서도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舍儒歸佛是何心 유가를 버리고 불가에 귀의함은 무슨 마음인가,
 此道元非物外尋 이 도는 원래 物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네.
 如識兩門端的意 만약 兩門의 분명한 뜻을 알려고 한다면,
 請看論語細參尋⁸⁰⁾ 청컨대 논어를 보고 자세히 찾으시구려.

78) <還南原梅軒集 戲爲謾語用前韻>

79) 麗末鮮初의 학자이며 鄭夢周의 문하생인 權遇(1363~1419)의 문집이다.

80) <贈淸寒梅月堂金悅卿時習>

이 시는 스님이 된 김시습을 회유하며 지은 시이다. 김시습은 端宗廢位에 통분하여 나흘 동안 杜門不出 斷食한 후,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는 雪峯이라는 法名으로 스님이 되었다. 괴애는 佛家에 의탁한 김시습에게 學問의 근본은 儒學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진정한 道는 세상 물정을 벗어난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므로 儒·佛의 진정한 뜻을 알려거든 먼저 『論語』부터 살펴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괴애의 이러한 태도는 성인을 징험하고자 하는 ‘徵聖’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극히 儒學者적인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괴애가 보낸 이 詩에 김시습은, ‘儒·佛은 비록 서로 다른 길이지만 養心에 목적을 둔 나에게는 『論語』와 佛經이 다를 것이 없다’⁸¹⁾라고 和答하였다. 즉, 道의 本質을 기르는 것은 養心에 있으므로, 자신은 부질없는 세상일에 구애되지 않은 채 수양하며 살고 싶을 뿐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⁸²⁾

사실 괴애도 종종 詩文을 통해, 관직을 버리고 佛家에 귀의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었다. 그러나 실제로 佛家에 몸담은 김시습에게 그는 학문의 근본은 유학에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결국 이 시는, 괴애가 추구했던 삶은 儒家로서 현실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儒家로서 현실의 삶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괴애는, 또한 훌륭한 官人이 되고자 노력하였는데, 아래 시에서는 관인으로서의 그의 포부와 의지가 보이고 있다.

81) <和金文良韻>, “岐路雖殊只養心 養心不及謾他尋 但於事上渾無碍 糟粕何須歷歷尋”

82) 이와 같은 김시습의 태도는 儒家의 傳統 修養論과 相異하다. 儒家의 存心養性是 孟子로부터 비롯되었는데, 『孟子』 「盡心上」에 ‘자기의 본심을 간직하고,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시습은 현실을 떠나 ‘心’ 안에서의 자기성찰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가 이미 佛家에 귀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數莖華髮兩鬢邊	몇가닥 흰머리가 양쪽 귀밑머리에 드리웠으니,
年不後人仕不前	나이는 남보다 뒤지지 않았는데 벼슬은 앞서지 못했네.
三載奔馳愧無地	삼년동안 바빴어도 내 땅 없어 부끄러우나,
一生行止知有天	일생에 出處에는 천명이 있음을 알았노라.
武城只欲希游宰	무성에서 단지 자유가 재상 되기를 바랬을 뿐,
句漏何曾問葛仙	구루에서 어찌 갈홍이 신선 된 것을 묻겠는가.
却恐他時人物論	도리어 두려운 것은 후세에 인물을 논함에,
某爲愚也某爲賢 ⁸³⁾	누구는 어리석고 누구는 어질다는 거라네.

이 시는 44세가 되던 1452년에 榮川郡守를 지내면서 지은 것이다.

남들보다 뒤쳐진 벼슬길이지만 삼년이란 시간동안 동분서주 정신없이 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게 일했음에도 쌓이는 재산은 없으니, 인생에서 出處와 富貴는 모두 天命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니, 武城에서 원님을 지냈던 子游⁸⁴⁾처럼 되기를 바랄 뿐, 句漏에서 은거하며 民生을 돌보지 않았던 葛洪⁸⁵⁾처럼 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頸聯은 郡守로서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儒者的 政治관의 표상이다. 따라서 그는 비록 자신이 높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상과 포부는 후세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질 것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皮애의 이러한 모습은 ‘盡人事待天命’과 같이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려는 적극적

83) <次榮川東軒韻>

84) 『論語』「雍也」, “子游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耳乎 曰 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6) p.167.

85) 葛洪(283~?)은 石氷의 亂때 공을 세워, 列侯 바로 아래 第二位의 關內侯가 되었는데 벼슬은 거절했었다. 그러던 중 交趾 句漏(베트남 북방 경계)에 丹砂가 많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練丹을 하기 위해 하급관리를 자청하였다. 애초부터 관리를 할 생각은 없었던 그는, 羅浮山 위에 도착하자마자 전심으로 練丹에만 몰두하고 天下의 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7년 동안의 수련 끝에 신선이 되어 81세에 신비롭게 인간계를 떠났다고 한다.

인 현실참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儒者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이다.

邑是要衡爲使營	고을이 관리를 필요로 하여 다스리게 되었는데,
簿書旁午雜陰晴	공문서로 정신없이 바빠 날씨 맑고 흐림도 몰랐다네.
印緘才了又忙拆	인장찍어 봉해 겨우 마치고는 또 바쁘게 개봉하고,
客去未遙還出迎	객 떠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나가 맞이하네.
歲事豐凶天水旱	한 해 농사 풍凶은 하늘의 큰물과 가뭄에 달렸고,
民生休戚吏汚清	민생의 흥憂는 관리의 탐욕과 청렴에 달렸다네.
使君自是循良行	태수는 이로부터 나라를 위해 진력하여 법을 지키니,
須信心平政亦平 ⁸⁶⁾	모름지기 민노라 마음이 평안하면 정치 또한 평안해짐을.

이 시는 괴애의 愛民과 善政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시가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郡守로서의 감회를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그가 군수를 지냈던 40대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首聯에서는 군수로서 그곳에 가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頷聯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밝은 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끝없이 밀려있는 문서들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公務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頸聯과 尾聯에서 말하길, 계절별로 주관되는 일들은 자연의 뜻에 있지만 民生은 관리하기에 달려있으므로, 자연이 주관하는 일과 인간이 주관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면 善政은 절로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정치는 절로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는 시에서 관인이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

86) <水原東軒次獨谷韻> 四首 中 第二首.

래 시 역시 官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이다.

光陰百代過	세월은 백대나 지나갔어도,
天地一身浮	천지간에 내 한 몸 떠돌이 신세.
客久鬢毛改	객된지 오래되어 터럭은 변했는데,
秋深竹葉稠	가을은 깊어서도 댓잎만 무성하네.
治民要清簡	백성 다스림에 청렴과 검약 필요하고,
試士黜華浮	선비를 선출함에 사치와 낭비 쫓아내네.
綠酒樹還酌	맛좋은 술 주거니 받거니,
君恩重以稠 ⁸⁷⁾	임금님 은혜가 거듭 가득히 넘치네.

百代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人間은 잠시 살고 떠나가는 客일 뿐이다. 그렇게 客으로서의 삶을 살아간지 오래되어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댓잎은 가을에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평생을 儒者로서 살아온 작가는 清廉潔白을 추구하고 奢侈와 浪費를 지양하였다. 그리고 임금도 俳優의 이러한 뜻을 아시고, 자신을 비롯한 훌륭한 선비들을 많이 선출하여 나라를 太平聖代하게 다스리고 있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세월의 영원함과 자연운행의 유상함 앞에 떠돌이 인간사의 무상함을 비교하여 극대화함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인간사의 무상함에 탄식조의 분위기를 연출해보지만, 결국 그는 관료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다. 그리고 頸聯에서 백성을 다스리는데는 우선 청렴하고 검약한 자세를 갖추어야하므로, 애초에 과거시험에서 인재를 뽑은 때에 사치하고 낭비하는 이들을 배격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맛좋은 술을 주고받으며 생각해보니, 지금이 바로 정치가 잘 되고

87) <次金山韻>

있는 때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태평성대를 베푸신 임금의 은혜로움에 감사하고 있다. 관인으로서의 포부와 임금에 대한 찬양을 보이고 있는 이 시는 다분히 유가적 성향을 지닌 괴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젊은 시절 館閣의 임무에 충실했던 괴애는, 노년이 되어서는 佳客들과 함께 學問을 논하고, 詩書를 즐기며 유유자적 여생을 즐기며 작품활동을 하였다.

垂老官閑臥弊廬	나이들어 관직도 한가해져 초라한 집에 누워있으니,
茶甌兼復酒樽餘	차 그릇 겹겹이 놓여있고 술동이도 넉넉하네.
衡門不向世人設	천한 대문은 세상 사람을 향해 설치하지 않았고,
高榻只爲佳客除	높은 의자는 다만 아름다운 객을 위해 손질했네.
靜裏沿洄探釋老	고요한 가운데 이리저리 釋老를 탐구하고,
閑中淡啖駁詩書	한가한 중에 담소 나누며 詩書를 논박하네.
殷勤更約白蓮會	은근하게 또 다시 白蓮會를 약속하며,
歲晏相從結社居 ⁸⁸⁾	해 저물 즈음 서로 따르며 모임을 만들어 지내네.

노년의 한가로움과 음유를 즐기는 조선문인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시이다. 首聯에서는 나이가 들어 한가해진 후 유유자적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頷聯에서 초라한 대문일지라도 세상 쪽을 향해 내지 않았다는 말은, 세인의 갑론을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작가의 의지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객과 소박하게 즐기기 위하여 높은 의자만은 손질해 두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괴애가 추구하는 노년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頸聯에서 작가는 佳客과 담소 나누고, 논박하며 즐거운 때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 尾聯은 지금 이 모임을 白蓮會⁸⁹⁾에 비교하여 자신들 모임의 격을 높이면서 다음 번에 다시

88) <謝豐基金公見訪> 四首 中 第一首.

89) 白蓮會는 東晉의 慧遠法師가 廬山の 虎溪 東林寺에서 名僧 慧永, 慧持, 道生과 名儒 劉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이상의 시를 살펴본 결과, 괴애는 현실에서의 儒家的 삶을 충실하게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사상적 경향이 다른 儒家들과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가 근본으로 두고서 추구했던 세계는 儒學에 있음을 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儒·佛思想의 調和

現實 안에서 유학을 근본으로 삶을 살았던 괴애는, 그러나 그의 好佛의 성향으로 인해 많은 儒家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현실압박에 대한 괴애의 내면갈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또 스스로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非佛非儒間道人 유자도 아니고 승려도 아닌 그 도인들 사이에서,
早將三業謝癡嗔 일찍이 삼업으로 어리석게 성내는 것 사양하네.
歸朝莫說狂居士 조정에 돌아가거든 狂客이라 말하지 말게나,
世上昇沈一屈伸⁹⁰⁾ 세상의 성쇠는 한번 굽혔다 펴는 정도인 것을.

자신은 儒者도 佛者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이므로, 三業⁹¹⁾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성쇠는 허리를 한

遺民, 宗炳, 雷次宗 등 123인과 彌勒佛像 앞에서 맹세하며 西方淨業을 닦기 위해 맺은 結社이다. 白蓮이라는 이름은 절에 흰 연꽃이 많았던 이유에서 지어졌다.

90) <次金牧使韻> 十首 中 第十首.

91) 三業은 佛家語로, 身業(一身上에 일어나는 業因), 口業(말에서 일어나는 業因), 意業(뜻에서 일어나는 業因)을 말한다.

번 굽혔다 펴는 정도의 별것 아닌 일이므로, 더 이상 자신의 道에 대해 曰可 曰否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놔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당시 儒家들은 괴애의 好佛의 성향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주 상소를 올려 그를 파면시키기를 요청하였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작가는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시는 그러한 자신의 갈등과 고통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비판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승화시키고 있으니, 시에서 그는 자신의 道에 대해 달관적인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다가오는 世人들의 지탄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自怪乖崖老	스스로도 괴이하다 여기는 괴애노인,
恒爲一兩身	항상 하나이면서 둘인 몸이라네.
既能儒服客	이미 응당 유복의 객이 되었거늘,
何用墨行人	어찌 묵행을 수행하는 사람되리요.

時節年年好	시절은 해마다 좋아지건만,
工夫日日疎	공부는 날마다 소원해진다네.
儒言是大極	유가에서는 태극이라 말하고,
佛說卽眞如 ⁹²⁾	불가에서는 곧 진여라 말하네.

詩題가 乙未元日인 것으로 보아, 성종 6년(1475) 66세가 되던 새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第一首에서 보여지는 작가의 모습은 앞의 <次金牧使韻>시에 비해 한층 안정되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앞의 시에서 자신은 儒者도 佛者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라면서 兩者를 모두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 시에

92) <乙未元日> 三首 中 第一, 第二首.

서는 현실에선 자신은 儒者이지만, 내면에는 佛者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兩者 긍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第二首에서는, 우주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를 儒家에서는 太極이라 하고, 佛家에서는 眞如라 하는데, 이 두가지는 배경사상과 불리는 명칭만 다를 뿐 근원적인 이치는 같다는 것이다. 즉, 儒와 佛은 학문적인 사상과 수행 방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경계 없는 동일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학문적인 이념과 사상은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非儒非佛老書生	儒者도 아니고 佛者도 아닌 늙은 서생이,
贏得儒林孟浪名	널리 儒林이란 맹랑한 이름을 얻었다오.
抱子弄孫渾俗態	아들을 안고 손자와 노는 것은 세속의 모습이고,
翻經禮佛似僧行	불경을 펼치고 예불하는 것은 중의 행동과 같네.
道余好怪誠非妄	내가 괴이함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망녕되지 않으나,
謂我求真亦失情	내가 진리를 구한다고 이르는 것은 또한 情을 잃은 거라네.
獨有一心天地廣	홀로 천지와 같은 넓은 一心을 지니고 있으니,
蹈波無處不源清 ⁹³⁾	파도치고 나면 근원이 맑지 않은 곳이 없다네.

이 시는 鄭麟趾(1396~1478)에게 준 것으로, 유와 불을 모두 행하는 자신의 입장을 마음에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식을 두고 재물을 보는 것은 佛者가 아니고, 佛經을 보며 예불하는 것은 儒者가 아니지만, 스스로는 一心을 지녔기에 그 근원이 淸淨하다는 것이다. 즉, 儒·佛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一心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순된 것

93) <上河東府院君> 六首 中 第六首.

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국 괴애가 추구한 것은 儒와 佛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입장에서 ‘마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괴애는 世人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스스로 儒者의 행동과 佛者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학문은 근원적인 道를 추구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학문과 사상을 초월하여 나뉠대로의 조화로운 의식세계를 구축한 괴애는 世人들의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며 학문의 완성도를 과시하고 있다.

馮翼初分孰肇天	희미하게 처음 나날 때 누가 하늘을 열었는가,
川流岳峙自成區	내 흐르고 산은 우뚝하여 절로 구획 지어졌구나.
縱然物像千差別	실사 만물의 형상이 천차만별일지라도,
在反心源一理娛	마음의 근원 돌이켜보면 하나의 이치에 즐겁다네.
靜裏眇觀還獨樂	고요속에 그윽히 바라보니 되려 홀로 즐거운데,
閑中眇契與誰俱	한가로운 중에 깊은 약속은 누구와 함께 할꼬.
兩家畦町平無迹	양가의 경계가 평평하여 자취 없으니,
儒亦爲吾佛亦吾 ⁹⁴⁾	유가 또한 날 위하고 불가 역시 날 위함일세.

태초에 자연만물이 서로 다른 물상을 갖게 된 것을 누가 주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그 근본이 같으므로 그 하나된 이치는 즐거울 뿐이다. 따라서 儒·佛 역시 그 근본 理가 같아 경계가 없으므로, 儒나 佛을 구분

94) <昨以唱和之故 謁河東府院君 痛飲還家 朦朧未省 軒騎適臨 闕於展待 夜後點燭 擁被而坐 因感劉伶之酒德 思孟浩之詞宗 天地大矣 而萬物並育於其間 聖賢相傳 而二氏雄鳴於後世 僕竊嘗領略其旨 有契於心 哀然有述 連賦四篇 且奉盛什 圭復無已 信乎珠玉在旁 覺我形穢也 冀垂雷覽 終其唾棄> 四首 中 第一首이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儒佛은 근본적인 理가 같기 때문에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自謂心無累	스스로 마음에 걸림 없다고 하나,
人云德已荒	사람들은 덕이 이미 황폐해졌다하네.
年年欲歸去	매년 벼슬 버리고 돌아가려 했으나,
歲歲但彷徨	해마다 단지 방황만 했을 뿐이네.
怪彼乖崖老	괴상한 저 괴애라는 늙은이는,
居家事業奇	집에서도 하는 일들 기이하네.
念經參繡佛	경을 외다 불상 앞에 참배도 하고,
把酒對歌姬 ⁹⁵⁾	술 가져다 기녀와 노래부르네.

성종 9년(1478) 69세가 되던 해에 봄에 지은 시이다. 괴애는 늘 벼슬을 버리고 현실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고희의 나이에 이르도록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세속에 안주하였다. 그러나, 세속의 삶 속에서 그는 참선을 수행하다가도, 술 마시며 기녀들과 노래하며 즐겼는데, 이러한 그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世人들은 덕이 황폐해졌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괴애는 시를 통해 자신의 한평생 삶을 회고하며, 자신의 모습이 결코 모순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록 외형적인 모습이 세상사람들 눈에는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내면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괴애는 자신이 즐기는 도를 ‘마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儒者의 행동과 佛者의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95) <戊戌年門帖>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근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신의 학문세계가 높은 경지에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이처럼 학문에 있어서 儒·佛을 모두 섭렵하고, 나름대로의 조화로운 의식세계를 구축한 괴애 김수온은, 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儒佛의 갈등은 근원을 파고들면 그 이치가 모두 동일하므로, 儒와 佛은 '하나의 이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思想的 調和를 正當化하고 있다.

3) 旅情의 感慨

여행은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현실에서의 고뇌를 씻고 心身을 충전하는 동기가 된다. 또한 여행은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문인들은 自然 景物과의 遭遇를 통해 자연 속에 하나간 된 감흥과, 여행을 하면서 겪은 흥취들을 토로하면서 이러한 느낌을 詩로 표현하였는데, 괴애 역시 旅情에서의 感慨를 詩로 표현하고 있다.

頽垣破礎暗螢飛	담 무너지고 주춧돌 부서져 어두운 반딧불만 날고,
贏得都人指點歸	도성 가득 사람들은 가리키며 보다가네.
却似千年遼鶴唳	마치 천년만의 요동학이 날아와서 우는 것은,
山川如舊昔人非	산천은 옛과 같은데 옛사람들 아니라서네.

春風處處百花飛	봄바람 불어 곳곳마다 온갖 꽃이 날리는데,
擬向松都匹馬歸	송도 향해 필마 타고 돌아가나 착각했네.
五百年間人物論	오백년간 인물들을 논해보자 한다면,

迷君誤國定誰非⁹⁶⁾ 임금 가려 미혹하고 나라 그르침 바로 누구 잘못인가.

이 시는 약 500여년 동안 고려의 首都로 변화했던 松都와 天壽寺를 지나가다 느낌이 들어 지은 것이다. 天壽寺는 高麗 16代 王 睿宗(1079~1122) 때 지어진 절이다. 이 절은 松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거점이자, 외세 침입에 대비한 방어의 요새였으며, 또한 왕의 순행시 離宮의 기능을 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 곳에는 고려왕조의 화려했던 문물과 역사의 흔적이 깊이 깃들여 있다. 그러나 고려가 멸망한 지금, 그 성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구경꾼만 도성 가득하여 역사의 뒀안길에서 옛 왕조의 추억만을 담고 있을 뿐이니, 작가는 이 곳에서 화려했던 500년 왕조의 興亡盛衰를 되새기며 시를 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쓸쓸한 심정은, 丁令威가 천년만에 鶴이 되어 돌아와 세상이 온통 변한 것을 탄식했던 그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결국 돌이켜보면, 신하로서의 역할이 왕조의 흥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에, 후세에 이 것을 평가해 줄 것이라며 위안하고 있다.

다음 시도 역시 옛 왕조의 일을 회고하며 적은 것이다. 漁陽 館舍壁에 적은 이 시는, 나그네로서의 감회와 함께 옛 왕조의 일을 회상하며 나라와 임금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리고 있다.

誰教治亂倚無常	누군들 다스림과 어지러움 일정치 않고 싶겠나,
祇在君心一聖狂	다만 임금 마음이 어질거나 지나친 중 하나라네.
叢蘭擊胡驚鼓角	난초가 무성한데 사악한 오랑캐가 고각으로 놀래키니,
大唐天子罷霓裳	당나라 천자는 예상우의곡을 파하였네.

96) <次天壽寺韻>, 『拭疣集』에 실려있는 <次天壽寺韻>은, 第一首를 제외한 나머지 詩가 거의 대부분 脫句되어, 전체 詩가 몇 首인지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二首의 詩는 『東文選』에 실려있는 것을 토대로 적은 것이다.

斷橋尙認前朝事 끊어진 다리에서 도리어 전대 왕조의 일을 알 수 있고,
 頽壘猶存故國疆 무너진 성루에는 여전히 옛 왕국의 강역이 남았구나.
 四十二年霄旻業 사십이년간 정사에 부지런하던 임금께서,
 可憐奇禍□於楊⁹⁷⁾ 양귀비로 인해 기화 일어난 것 가련할 뿐.

戊寅年朝京時作이라는 註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 4년(1458) 49세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中樞院判事를 지내고 있던 괴애는, 이조참판 金連枝와 함께 表箋을 받들고 명나라 사신으로 갔었다. 이 시는 명나라를 유람하다가, 唐나라의 관사가 있던 漁陽⁹⁸⁾에서 느낌이 들어 적은 것이다. 唐 玄宗은 본래 聖君이었으나 양귀비를 만나면서 정치를 도외시하고 음탕해져,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괴애는 당 현종의 이야기를 통해 爲政者에 대한 規戒를 시로 읊은 것이다.

괴애의 旅情詩에는 옛 왕조를 읊으며 懷古한 시 외에도, 순수한 客心을 보이는 詩 또한 많이 보이는데,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떠나 나그네로서의 외로운 심정과 정겨운 인간미가 엿보이는 작품이 많다.

莫道嚴凝是臘天 혹독하게 얼어붙는 것이 설달 날씨라 말마소,
 邇來風日更嬋娟 요사이 바람과 햇살이 더욱 아름답구려.
 野田無雪臥枯草 들판에는 눈 하나 없이 마른풀만 누워있으나,
 官道有埃團綠烟 벼슬길엔 먼지 껴도 푸른 안개 어려있네.
 馬穩不知行役倦 말이 온순해서 여행에 지칠 줄도 모르고,
 鋪深端覺起居便 역참도 깊숙한 곳이라 기거에도 편안하네.
 遠天落日斜輝射 먼 하늘의 지는 해가 비스듬히 햇살 비추고,
 壞壁溫溫寫客篇⁹⁹⁾ 무너진 벽도 따스해져 객이 시를 짓네.

97) <書漁陽館壁>

98) 唐 玄宗이 天寶元년에 蘇州를 漁陽郡으로 고치고 행정관서를 漁陽에 두었다.

여행에서 느끼는 나그네로서의 객수를 따뜻하게 드러낸 시이다. 계절은 선 달 추운 날씨지만, 바람 잔잔하고 햇살 따뜻하여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때이다. 마른 풀들 흩어져 있는 벌판에는 겨울날씨 답지 않게 눈 하나 쌓여 있지 않은데, 벼슬길에는 먼지 끼고 푸른 안개 어려있다. 首聯과 頷聯은 자연을 통해 객심을 발하는 계기로서,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날씨의 따뜻함만큼이나 작가의 마음도 넉넉해져, 굴곡 많았던 관직생활도 지나간 과거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頸聯과 尾聯에서 세상의 복잡함을 잊고 두루 다니다가, 이 곳 송산포에서 해지는 노을을 보며 나그네로서의 감회에 젖어 시를 읊는다. 이 시는 나그네로서의 외로움보다는 오히려 여행을 통해 지친 心身의 안정을 되찾는 작가의 여유로운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해진 후, 괴애는 마음 맞는 벗들과 吟遊하며 한적한 노년을 즐겼다. 멀리 있는 벗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벗과 함께 명승고지를 유람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보냈다.

自我知君面	내 그대를 알게된 것이,
如今已六年	이제 벌써 여섯 해구려.
身軀雖若老	몸은 굵어 비록 늙은 듯 하지만,
貌澤却還妍	모습은 윤택하고 도리어 곱네.
梨密陰成幄	배나무 뻗은 그늘이 장막을 이루고,
桃酸味潤涎	복숭아 새콤한 맛이 윤택하구려.
莫言家未釀	집에서 술담그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오,
一笑勝開筵 ¹⁰⁰⁾	한번 웃는 것이 잔치 연것보다 낫소이다.

제목이 '과도를 보러 가는 도중에 金承이 서리 맞은 복숭아 한 소반을 내와

99) <松山浦>

100) <看波途中金承以霜桃一盤出饋坐路上梨下小談>

길가 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이야기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제목에서부터 매우 정감이 느껴지는 시이다. 그는 知人과 함께 배나무 아래 앉아 맛있는 복숭아를 먹으면서, 소박하지만 벗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복숭아를 내온 주인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오랜만에 만난 벗에게 제대로 술대접도 못한 것에 안타까워 있다. 그러나 궤애는 이렇게 얼굴 대하고 마주 앉아 웃고 있는 것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여는 것보다 낫다고 오히려 그를 달래고 있다.

유람 중에 오랜만에 만난 벗과의 감회를 적은 이 시는, 소박하면서도 인정미 넘치는 작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官閑君我共行休	벼슬살이 한가로워 그대와 나 함께 쉬려고,
西嶺躋攀作勝遊	서쪽 고개 올라가서 명승지를 유람하네.
俯視塵寰唯一氣	속세를 굽어보니 천지의 원기이고,
仰看天宇正三秋	하늘을 우러러보니 가을이라네.
誰家細馬馱青眼	누구 집 준마는 젊은이를 태우고,
何處侯門坐白頭	어느 곳 후문에는 백두옹 앉았네.
香麝隨風飄舊袖	향기로운 사향이 바람 타고서 고운 소매를 나부끼고,
綺羅耀日酌清醕	아롱진 비단은 햇살에 비치어 맑은 술을 잔질하네.
文公絕句皆精切	주자의 절구시는 모두 정밀하고 적절하였고,
徐相佳期自謬悠	서상의 아름다운 기약 절로 허황되네.
坐上笑談通釋老望中城闕晚來	앉아서 담소하며 석가와 노자에 통하다가 궁궐 바라보니 저녁 되었고,
婦女從高岳歌舞婆娑過道周 ¹⁰¹⁾	여인네들 높은 산에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며 너울너울 길가를 지나가네.

한창 가을인 重陽節에 子固 金紐(1420~?)와 함께 慕華館¹⁰²⁾과 서쪽 산을 등

101) <重九與子固登臨慕華西山 因記所見錄呈不忘云>

102) 중국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松都의 迎賓館을 모방해서 서대문 서북쪽에 지은 것이다.

림하여 보고 느낀 것을 지은 古詩이다. 1~4구는 등림하게 된 연유와 올라가서 그윽하게 俯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5~6구는 멀리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속세 사람들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7~8구에서는 산 위에서 부드러운 바람결에 아름다운 소매 깃 흔들며 술 마시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7구와 8구는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대구를 이루고 있다. 9~12구는 子固와 함께 당대 거장들의 문장에 대해 담론하다가 문득 멀리 대궐을 바라보니, 해는 저물어가고 아낙네들은 흥겹게 산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였다. 한가로운 가운데 벗과 함께 등림하여 문학을 담론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고상하고 운치있는 조선문인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이상으로 괴애의 旅情의 世界를 살펴보았다. 처음 <次天壽寺韻>과 <書漁陽館壁> 두 편의 시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곳을 돌아보며 당시 역사의 포핍을 통해 관리로서 規戒해야 할 것과, 위정자로서 찾아야 할 역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문인으로서의 작가의식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순수한 客心이 엿보이는 시를 통해서, 한가롭고 소박하면서도 인정미 넘치는 작가의 새로운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4) 山水에서의 興趣

비단 괴애의 문학세계가 道를 추구하며 詩文을 敎化의 목적에 두고 있었을 지라도, 그는 또한 인간의 서정적 감정에 충실한 시를 지어 自然과 交感하고자 노력했었다.

山寺尋遊日 산사를 찾아 노닐던 날은,

秋風木落時	가을 바람에 나뭇잎 지던 때이라.
窓虛僧結納	스님은 조용히 창가에서 납옷 입고,
塔靜客題詩	객은 고요히 탑에서 시를 읊는다네.
翠柏霜猶秀	푸른 측백은 서리맞아 더욱 빼어나고,
寒花晚欲微	찬 국화는 느즈막히 시들려 하는구나.
地淸無夢寐	경지가 맑아서 잠 못 이루니,
誰得更喧思 ¹⁰³⁾	누가 다시 세상 번잡함을 생각하리오.

가을 날 산사 주변의 고요하고 한가로운 情景을 묘사한 것으로, 閑雅함의 극치를 엿볼 수 있는 시이다. 그는 山寺의 한가로운 모습을 동경하면서 그 안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다. 고요한 山寺에서 맑고 빼어난 翠柏과 寒花는 속세의 때묻은 작가를 자연 속으로 동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작가는 그 청정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결코 세상의 번잡함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청정한 산사의 모습은 ‘虛’와 ‘靜’으로 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

諸家들은 이 시를 閑遠·閑雅하다고 評했는데, 許筠은 ‘窓虛僧結納 塔靜客題詩之句 殊閑遠有致¹⁰⁴⁾’라고 評했고, 洪萬宗은 『小華詩評』에서 ‘金乖崖山寺詩 窓虛僧結納 塔靜客題詩 則愛其閑雅’라고 評하였다.

이처럼 淸淨함과 閑雅함이 배어나는 山寺詩에서는 종종 괴애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이 드러난다. 비록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를 구현하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의 시 안에서 ‘空’의 세계로 귀결되고 있다.

屋頭蒼翠壓潺湲	지붕 끝의 푸르름이 물빛을 제압하니,
聲想溪流色想山	소리로 냇물을 알고 빛으로 산을 아네.

103) <題福靈寺壁次僕氏民韻>

104) 許筠, 『惺所覆韻藁』 卷二十五 (韓國文集叢刊 卷七十四) p.360.

我空眼前空作礙 내 눈앞은 비었으나 텅 빈 것이 가로막는데,
 師從心上內圓滿 스님의 마음을 따르니 내 마음도 원만해지네.
 一枝筇影猿啼外 지팡이에 의지해 서있으니 원숭이 울음소리뿐인데,
 六尺身名俗鬧間 육척의 몸과 이름이 속세의 시끄러운 틈에 있었구나.
 明日野橋分袂處 내일이면 들관의 다리 이별하는 곳에서,
 忙忙留與去閑閑¹⁰⁵⁾ 바쁜 이는 남고 가는 이는 한가하리.

首聯은 山水軒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산과 계곡의 그윽한 경치를 묘사하였다. 산과 물이 온통 푸른빛 一色이니, 녹음에 가리워진 냇물 소리를 듣고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안다. 5聯에서 ‘空’은 작가의 눈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空’이란 없는 것이지만, 관념적으로 ‘空’은 ‘滿’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텅빈 것도 하나의 물상임을 깨닫고 나면 마음이 원만해진다. 頸聯에서는 원숭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속세의 번잡한 곳을 떠나 인적 없는 곳에 들어와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세속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념들은 이곳에 버려 두고, 자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시구 ‘忙忙留與去閑閑’은 복잡한 번뇌는 깊숙한 이 산속에 남겨두고, 청정한 자연에 씻겨 새로워진 자신의 몸과 마음은 떠난다는 의미로, 남는 것과 가는 이의 대조를 리듬감 있게 살리면서 전체 시의 분위기에 가락을 띠게 하고 있다.

‘色卽是空 空卽是色’의 초월성이 내재된 이 시에서, 괴애는 유학적 현실 생활을 세속적인 시끄러운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스님의 한가로운 경지를 그가 그리는 이상적 세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平穩하고 隱逸한 풍격을 지니며, 맑고 깨끗한 탈속경지의 淸淨함이 묻어난다.

이처럼 古雅한 山寺詩 외에도, 괴애는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는 자연물을

105) <次上人山水軒詩卷韻>

소재로 많은 시를 지었다. 계절의 순환, 날씨의 변화,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묘사한 시에서는 색다른 느낌의 자연시를 감상해볼 수 있다.

急雨紛紛忽打窓 소나기가 주룩주룩 홀연 창문을 두드리니,
麻花蕉葉響攔攔 삼꽃과 파초잎에 빗방울 소리 후두둑후두둑.
丫頭稚子收泥卷 머리 땀은 어린아이 흙 문은 책 수습하고,
白髮衰翁對酒缸¹⁰⁶⁾ 백발의 늙은이는 술항아리를 마주 대하네.

이 시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느낌을 받아 지은 것이다. 소나기 빗방울이 창문을 치고, 또 삼나무 꽃과 파초잎에 부딪치면서 요란스런 소리를 낸다. 起句와 承句는 갑작스레 내리는 소나기 소리를 ‘紛紛’, ‘攔攔’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를 생동감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轉句와 結句에서는 허둥지둥 비를 피해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소나기를 바라보며 술한잔 걸치는 노인의 모습이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대구를 이루고 있다. 자연의 풍경과 소리를 섬세한 관찰력을 통해 재치와 해학으로 엮어낸 이 시는, 마치 민속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섬세한 관찰력을 통해 자연의 느낌과 특성을 표현한 物의 詠物詩이다. 사물의 정취를 그려내는 영물시는, 그 내용에 따라 自省과 規戒를 표현하는 것, 사물을 통해 자신의 흥취를 토로하는 것, 그리고 교훈성과 서정성을 배제한 채 사물의 사실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 등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⁰⁷⁾ 物의 詠物詩는 많은 영물시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匪懈堂¹⁰⁸⁾에서 읊은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06) <卽事>

107) 金呂珠,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p.320~321. 참조.

108) 匪懈堂은 세종의 셋째 아들 李瑬(1418~1453), 즉 安平大君을 말한다. 匪懈堂은 그의 堂

桃花有千葉	복숭아꽃 수천 송이 피어있고,
一朵共三芳	한 줄기마다 세 꽃이 함께하네.
淺色霞初暈	얇은 빛깔은 노을이 해무리지듯 하고,
深紅錦欲張	진한 다홍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네.
尋香蜂竟度	깊은 향내에 벌들은 멀리서 알아채고,
噉露蝶爭揚	이슬 마시려 나비도 앞다퉈 날아오네.
不是人間種	이것은 인간이 심은 것이 아니니,
還疑出晉郎 ¹⁰⁹⁾	아마도 진탕에게서 나온 것인 듯 하네.

이 시는 비해당의 三色桃(한 나무에서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복숭아나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이다.

首聯에서는 수천 송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桃花를 바라보다가, 점점 시야를 좁혀 자세하게 도화를 관찰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漸降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詩語도 점강을 이루어 桃花 - 一朵, 千葉 - 三芳의 형식상 대구도 보인다. 頷聯에서는 도화의 빛깔을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며 환상적인 느낌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 벌과 나비가 먼저 알고 찾아드는 이 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尾聯에서 이 桃花는 인간세상의 것이 아닌 신선 세상인 도연명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桃花의 情趣에 극도로 몰입해 있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흥취와 회포를 토로하는 寄興의 영물시로, 비해당을 신선세계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號이자 號이기도 하다. 詩書畫에 모두 능하여 三絶이라 불렸는데, 도성밖에 武夷精舍를 짓고 南湖에 淡淡亭을 지어 수많은 책을 소장하였으며, 문인들을 초청하여 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匪懈堂詩는 안평대군이 匪懈堂 주변의 48개의 景物을 소재로 쓴 시인데, 당시 文臣들에게 이 시를 次韻케 하였다. 김수온의 匪懈堂詩 역시 이를 次韻한 것으로, 본래 48首가 있어야 하지만 문집에는 46首만 실려있다.

109) <三色桃>

粲粲階邊菊	섬돌가의 국화 찬연하게 피어나니,
重陽九月陰	중양절 가을이로구나.
香幽撞白麝	향기 그윽하여 흰 사향을 두드린 듯하고,
寒蘂嫩黃金	차가운 꽃술은 황금같이 곱네.
把酒陶潛醉	술잔 들고서 도잠처럼 취하고,
臨風杜甫吟	바람 맞으며 두보처럼 읊조리네.
古人俱已矣	옛 사람들은 모두 지나버렸으니,
采采獨盈襟 ¹¹⁰⁾	홀로 꽃잎 따며 옷자락에 담고있네.

국화꽃은 모든 꽃이 지는 중양절 즈음에 피어난다. 무서리를 맞으며 피어나는 국화꽃은 고난에 맞서 절개를 지키는 고고한 군자의 모습에 비유된다. 옛부터 중양절에 국화주를 마시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때문인지 많은 문인들은 중양절에 술과 국화를 소재로 시들을 짓곤 했다. 이 시 역시 국화향과 술향기에 젖어 옛시인들이 즐겼을 그 정취를 만끽하며 중양절의 한가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 시이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자연 경관을, 頸聯과 尾聯에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先景後情의 전형적 시작법을 통해 한가울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頸聯에서 옛사람의 풍취를 따랐던 작가는, 그러나 尾聯에서 홀로 자신의 옷자락에 꽃을 담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도잠과 두보가 아무리 뛰어난 문인일지라도 이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람일 뿐이고, 현재의 중양절을 만끽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도잠과 두보에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文才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共識春前艷	봄이 오기 전의 아름다움을 모두 알지만,
-------	------------------------

110) <凌霜菊>

那知雪後花	눈내린 후에 피는 꽃임을 어찌 알리요.
寒嚴猶自茂	차가운 바위에서 도리어 절로 무성하니,
歲晏欲誰誇	해 저무는데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耿節西山餓	굳은 절개는 서산에서 굶어죽은 이이고,
豐腴北里醜	풍성하고 기름진 것은 북리의 붉은 얼굴이네.
春生與秋殺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것에는,
此意定如何 ¹¹¹⁾	이 뜻은 정녕코 어떠한가.

이 시 역시 비해당에서 읊은 시이다. 고결한 이성을 뜻하는 동백은, 한겨울의 눈살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으로, 世人들은 흔히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도 말한다. 首聯의 이같은 도입은 동백꽃의 강한 의지와 절개를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頷聯에서는 동백에게 반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의 의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 頸聯에서 동백의 절개를 伯夷와 叔齊의 절개에 비유하고,¹¹²⁾ 동백의 자태를 北里의 취기 오른 여인의 얼굴에 비유하여 동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¹¹³⁾ 尾聯에서는 때를 알고 피고 지는 동백의 지혜로운 뜻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 영물시는 동백의 절개를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시이다.

다음에서 살펴 볼 영물시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소재로 쓴 것이다. 그러

111) <雪中冬白>

112) 西山에서 굶어죽은 이는 바로 伯夷와 叔齊를 가리키는 것이다. 周公이 殷나라를 멸망시킨 후 은나라에 살고 있던 백이와 숙제를 불러 등용시키려 하자, 이들은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하며 귀를 물로 씻고 首陽山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이 시에서는 백이와 숙제의 故事를 끌어내어 동백의 절개를 형상화하였다.

113) 北里醜에서 北里는 唐나라 長安에 있는 遊廓을 가리키며, 醜는 술이 달아올라 홍조를 띤 얼굴을 말한다. 여기서는 술에 취해 붉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요염한 여인네의 모습으로 동백의 자태를 묘사하고 있다.

나 식물을 소재로 쓴 영물시와는 달리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소재로 쓴 영물 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기보다는, 동물의 모습 자체를 묘사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먼저 개미를 소재로 쓴 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樹間除地作林亭 숲속 정자 지으려 나무사이 땅을 정제하니,
 羣蟻成行一路行 개미떼가 줄을 이루어 일렬로 가고 있네.
 不失後先皆有序 앞과 뒤를 잃지 않고 모두 질서가 있으니,
 誰教令號聽分明¹¹⁴⁾ 분명 누군가의 구령을 듣고 있는 거겠지.

이 시는 개미를 소재로 하여 그 곤충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작가의 세밀한 관찰력과 주의력을 통해 쓴 시이다. 起句에서 인간은 또 하나의 작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다가, 문득 개미를 발견하게 된다. 承句와 轉句는 모두 개미의 질서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다가, 마지막 結句에서 이 개미들에게는 분명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다. 개미는 본래 질서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작가는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그 절도 있는 모습에 느낌을 받게 된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미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해내는 모습은 진정한 시인으로서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知人心眼未機前 기미가 보이기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니,
 聰慧當爲百鳥先 총명함이 응당 다른 새들보다 앞서는구나.
 黏竹倚牆黃鼠舞 죽제비 춤추듯 대나무에 붙었다가 담장에 의지하고,
 雙雙飛下滿枝懸¹¹⁵⁾ 쌍쌍이 날아 내려와서 가지에 한가득 매달렸구나.

114) <蟻>

115) <眞雀>

이 시는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관찰력을 통해 참새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起句와 承句에서는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눈치채고 행동을 취하는 참새의 민첩함과 영특함을 칭찬하면서, 轉句와 結句에서 참새의 귀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상으로 감각적인 언어와 세심한 관찰력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김수온의 山水自然詩와 詠物詩를 살펴보았다. 산수자연시에서는 자연물의 특성을 실감나게 묘사하면서도, 그 뜻이 작가의 情과 맞아떨어져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동화되는 작가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영물시에서 감각적인 시어와 더불어 많은 典故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자칫 가벼운 유희로 느낄 수 있는 영물시에 무게감을 실어줌으로써 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영물시에는 그의 자유분방한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 재치있는 시어와 해학스런 표현이 보이고 있다.

V. 文學史的 意義

괴애 김수온이 활동했던 朝鮮前期는 儒學을 國是로 하여, 麗末의 혼란했던 사회적 국면을 바로잡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朝鮮의 文物制度를 정비해가던 시기였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문과 문학의 부흥을 일으켰던 당시에는 많은 걸출한 인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시기에 괴애는 집현전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科試에서도 그 文才를 인정받아 당시에 學者로서, 文人으로서 이름을 날렸었다.

그러나 儒敎와 佛敎를 調和시키고자 노력했던 그의 학문적 성향 때문에, 당시 괴애는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분명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속에 조화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신의 학문적 성향을 드러내고, 개성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그의 사상을 비판했던 儒家들조차도, 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詩文에 대한 諸家들의 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문장은 筆力이 광대하여 마치 長江의 큰 물결이 거침없이 흘러 막을 수 없는 것과 같다.¹¹⁶⁾

② 김수온 문장의 웅혼함은 자유자재로 常道를 좇지 않아 사마천의 범도를 제멋대로 넘어서니, 온 세상에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반항하고 있다. 그 시 또한 호건하여 깊이 골수를 얻을 수 있으나, 천성이 檢束에 구애됨이 없어 압운이 부정하여, 고로 모두 이르기를 詩가 文만 못하다 하다.¹¹⁷⁾

116) 成俔, 『慵齋叢話』 卷四, “其爲文章 筆勢浩瀚 如長江巨浪 滔滔不能遏”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2000) p.176.

③ 궤애의 높은 곡조 장자를 엿드러지게 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어찌 모름지기 사마천을 헤아리리오. 아득하고 엄숙한 문사는 조칙을 따르고, 금옥소리 같은 시율은 음률에 맞네.¹¹⁷⁾

①에서 成倪은 궤애의 거침없는 문장을 長江의 큰 물결에 비유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서 學問世界와 文學意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문장은 儒·佛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思惟로 인해 그 기세가 매우 광대하다는 평을 받았었는데, 성현 역시 궤애의 문장을 광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역시 成倪의 評이다. 당시 正史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마천의 軌조차도 거스르는 그의 거침없는 문장의 기세를 雄渾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詩의 내용은 깊지만, 압운이 부정하여 文만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현은 궤애의 文과 詩가 형식면에 있어 모두 당시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詩가 文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은 서거정이 궤애의 뛰어난 문장력을 칭송한 詩句이다. 사상을 초월하여 ‘근원의 이치’를 추구했던 그의 자유분방한 思惟體系와 거침없이 표현하는 筆力을 莊子와 司馬遷에게 비교하면서, 그의 詩文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김수온의 文에 대한 제가들의 評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거리낄 것 없는 그의 文力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의 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궤애의 文과 詩가 모두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는

117) 成倪, 『慵齋叢話』 卷九, “金文平 文章雄渾泛駕縱橫 專傲司馬子長之軌 舉世無與支吾 而其詩亦豪健 深得骨髓 然性不拘檢 押韻不正 故皆謂詩不如文” (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2000) p.237.

118) 徐居正, 『四佳集』 詩集, 卷三十 第十八, <又用前韻呈乖崖>中 首聯과 頷聯, “乖崖高調 倒蒙莊 載筆何須數子長 灑墨文詞追典誥 鏗鏘詩律中宮商” (韓國文集叢刊 卷十一) p.16.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詩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文보다 詩에서 더 많은 기교와 절제를 요구했던 당시의 시대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諸家들의 評을 통해 乖崖 金守溫의 詩文學 世界를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文學史的 意義를 도출해 낼 수 있다.

1. 集賢殿에서 활동하며 開國編纂事業에 적극 참여했던 그의 文學的 才能은 正統 儒學에 기인한다. 그는 유학의 學問的 體系를 갖추고 그것을 후학들에게 이어주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옛것을 본받아 그것을 후세에 전수하려는 그의 法古의 정신을 말해준다. 그러나 人物性同論의 初期形態를 보여준 것과 같이, 괴애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세계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創新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法古와 創新에 모두 충실했던 괴애의 노력은 文人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의 표출이다.

2. 朝鮮前期의 강한 抑佛崇儒 정책 속에서 그는 儒敎와 佛敎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작품 속에 흡수하고 있는 그의 문학 세계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는 사상적 경향만큼이나 자유로운 시세계를 추구하여 내용과 형식에서 다소 파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儒와 佛을 체계적으로 융합시켜 이룩한 그의 詩作品은 文彩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깊다.

3. 괴애는 비록 佛敎를 숭상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은 儒學이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草野에 묻혀 現實을 등한시하는

내용의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간혹 詩 안에서 山寺에 묻혀 살고 싶다는 뜻을 비추기는 하였으나, 그는 언제나 현실 안에서 儒家로서의 葛藤과 苦惱, 그리고 矜持와 自負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詩作品은 귀예의 현실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館閣文人으로서의 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乖崖 金守溫은 독특한 思惟에 근거한 개성있는 詩作을 통해 韓國漢詩史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시의 文風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그의 詩作品들은 韓國漢詩史에 있어 그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VI. 結 論

이상에서 乖崖 金守溫의 文學意識과 詩世界 전반을 고찰해 보았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밝히는 것으로써 결론을 삼고자 한다.

김수온은 學問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儒學을 추구하며 李穡과 鄭夢周의 학풍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儒學 안에 佛敎를 포섭하고자하는 독특한 사유체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사유체계는 그의 학문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근원의 이치'를 추구한다는 목적 하에 儒와 佛을 두루 수용하는 학문체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노력은 문학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작품 안에서 儒敎와 佛敎를 섭렵하는 다양한 세계를 구현하였다.

또한 그는 道를 중시하면서도 文을 경시하지 않는 문학적 성향을 갖고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즉, 그는 道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세계를 중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文의 효용적 가치 또한 必須不可缺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들을 함께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괴애는 시의 형식과 내용에서 개성적 표현을 거침없이 발휘하고 있다. 형식에 있어서는 과장적이면서 다소 파격적인 수사기교들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疊語와 對偶에서는 그의 시문학의 독창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詩語는 매우 평이하게 쓰고 있어, 그가 詩를 쓸 때 중점을 두었던 것이 형식적 기교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던 그의 개성적인 사상이 잘 표현되었다. 儒家的 삶

의 追求, 儒·佛思想의 調和, 旅情의 感慨, 山水에서의 興趣에서는 그의 다양한 사상체계 뿐만 아니라, 官人으로서의 氣概, 人間事의 喜怒哀樂, 自然과의 交感 속에서 얻어진 興趣 등 다양한 그의 詩心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儒·佛을 넘나드는 독특한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의 詩作品을 통해, 朝鮮漢詩史의 새로운 意義을 살필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一. 基本資料

金守溫,《拭疣集》,韓國文集叢刊 卷九.

金宗直,《佔畢齋集》,韓國文集叢刊 卷十二.

南孝溫,《秋江集》,韓國文集叢刊 卷十六.

徐居正,《東文選》,民族文化推進會.

———,《東人詩話》,月印.

成 俔,《慵齋叢話》,慶山大學校開校二十周年紀念事業團 學術行事委員會

梁誠之,《訥齋集》,韓國文集叢刊 卷九.

葉夢得,《石林詩話》,文淵閣 四庫全書,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柳 開,《河東集》,文淵閣 四庫全書,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論語》,成均館大學校出版部.

《孟子》,成均館大學校出版部.

《宋史》,文淵閣 四庫全書,迪志文化出版有限公事.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二. 論文

- 金性彦, <한국 관각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 金圓卿, <韓國 文學의 背景思想 研究>, 《서울教育大學校 論文集》 Vol.16. 1983.
- 盧承奭, <『拭疣集』譯註>,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신승운, <成宗朝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28. 1995.
- 윤기홍, <鮮初의 文學思想과 갈래 연구>, 《연세어문학》 Vol.19. 1986.
- 李相翊, <朝鮮前期 性理學者の 文學觀과 文學에 觀한 研究>. 1978.
- 李永朱, <杜甫 五言絶句 研究>, 《中國文學》 Vol.26. 1996.
- 李再薰, <毛詩 疊字에 對하여>, 《中國語文論叢》 Vol.1. 1988.
- 李鍾建, <金守溫 詩文學 考>, 《畿甸語文學》 Vol.2. 1987.
- 李昊榮, <乖崖 金守溫의 文名과 崇佛 性格>, 《단국대학교 論文集》 Vol.10. 1976.
- _____, <僧 信眉에 對하여>, 《史學志》 Vol.10. 1976.
- 鄭完基, <金守溫 文學에 對한 考察>,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조윤희, <朝鮮前期 金守溫家の 佛敎信仰>,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崔祐榮, <金守溫詩研究>,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 _____, <金守溫 文章의 特質>, 《洙上古典研究》 Vol.2. 1989.
- 崔海甲, <性理學의 自然觀에 關한 小考(其一)>, 《진주교육대학교 論文集》 Vol.12. 1976.

2. 著書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탐구당, 1981.
- 金甲起, 《韓國漢文學 그 概說과 各論》,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7.
- 金甲起 外, 《韓國漢文學史》, 半島出版社, 1991.
- 金相洪·梁光錫·申用浩 編, 《韓國文學思想史》, 啓明文化社, 1991.
-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 金呂珠,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
- 杜曉勤, 《20世紀中國文學研究·隋唐五代文學研究(上,下)》, 北京出版社, 2001.
- 蕭滌非 等, 《唐詩感賞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2.
- 송재소, 《한시 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비평사, 2001.
- 申用浩,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 申用浩教授 停年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漢文學과 漢文教育(上,下)》, 보고사, 2004.
- 吳戰壘 著,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 王 力, 《古漢語通論》, 中外出版社, 1976.
- _____, 《漢語詩律學》, 上海教育出版社, 1982.
- 劉若愚 著, 李章佑 譯, 《中國詩學》, 同和出版公社, 1984.
- 劉勰 著, 熊憲光 主譯, 《文心雕龍》,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6.
- 윤사순 외, 《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尹浩鎭, 《漢詩의 意味構造》, 法仁文化社, 1996.
- 李丙疇, 《한국의 漢文學》 제2권, 민음사, 1991.
-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2000.

- 李鍾殷 外, 《韓國歷代詩話類編》, 亞細亞文化史, 1988.
- 李鍾燦, 《韓國漢詩大觀》 卷十五, 이회, 2002.
- _____, 《漢文學概論》, 半島出版社, 1989.
- 임종욱, 《韓國漢文學의 이론과 양상》, 이회문화사, 2001.
- 張 毅, 《20世紀中國文學研究·宋代文學研究(上,下)》. 北京出版社, 2001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200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卷2, 지식산업사, 1994.
- 震檀學會, 《韓國史》, 乙酉文化社, 1962.
- 車相轅, 《中國古典文學評論史》, 汎學社, 1979.

ABSTRACT

Gae-ae Kim Su-on's Literary Consciousness and Poetry

Rha, Min Jeong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identify the literary value of Gae-ae(乖崖) Kim Su-on(金守溫)(1409~1481)'s poems, this study examined his life, a custom respecting literature at that time, his academic world(學問世界), Literary Consciousness(文學意識)and poetry(詩世界), and the significance of his work in literary history in order(文學史的意義).

Looking into his life and a custom respecting literature, this study illuminated the literary background enabling Gae-ae's poems to be created.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how his ideas harmonizing Confucianism and Buddhism(儒·佛調和思想) could formed, observing his life. Reviewing literary trends of the times, this study found out literary characteristics required in the early Chosun Dynasty(朝鮮王朝前期).

Regarding his academic world and literary 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d Gae-ae's own literary world by identifying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ae-ae established a broad academic world combining

Buddhism and Confucianism based on Zhu xi's ethics(朱子學). In relation to literary consciousness, this study looked into his literary consciousness formed based on his academic world.

Concerning his poetry, overall characteristics of Gae-ae's poems were examined by dividing form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Regarding formal characteristics, his poems showed various verse forms and rhyme forms which are free from form. It is noteworthy that he freely used rhymes and antitheses within the rules of poems. This study looked into the content of his poems by dividing the themes into four: pursuing Confucian life, conflicts in real life, traveler's deep emotions, and a charm of nature. First, this study found out his virile mind as a Confucian scholar regarding pursuing Confucian life. Second, in relation to conflicts in real life, this study noticed that his mind was troubled by criticism though he appeared not to care about it. Third, his world as a traveler could be understood through traveler's deep emotions. He also showed simple and kind aspects. Fourth, concerning a charm of nature, his sensible poetry could be seen through poems full of lyric emotion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found out that Gae-ae expressed the spirit and will as a Confucian scholar by creating literary works based on Sung Confucianism which was the absolute philosophy of the time. However, he also added Buddhist colors to his works, enriching them. He established a poetic world covering thinking and emotions by expression his true emotions through poems.